



삼국 · 고려시대

삼국사기가 전하는 파주

감악산과 몰자비沒字碑와
설인귀

삼국의 쟁투지 칠중성

고려사가 전하는 파주

혜음원과 파주

파주의 호족

여 백



삼국사기가 전하는 파주

염상균_역사탐방연구회 연구위원

『삼국사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요, 문화유산이다. 가야와 발해의 역사를 도외시한 흠은 보이지만 신라·고구려·백제의 역사를 세밀하게 다뤄서 그 시대를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책이다. 세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와 인물 그리고 각종 전쟁과 사건들까지 자세히 다루었다. 그뿐인가, 일식이며 지진, 혜성과 유성 등 천문지리와 폭설, 우박과 메뚜기 떼의 피해 등 자연재해도 놓치지 않았다. 연표와 지리지는 후대를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하여서 『세종실록』의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등의 성과로 드러났다. 또한 다리가 다섯 달린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다리 하나는 위로 향하였다는 기사부터 어미 소가 한 번에 송아지 셋을 낳았다는 특이 동물에 대한 내용도 보이니 사람에 대한 기사야 말할 것도 없다. 세쌍둥이나 네쌍둥이 얘기부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중요 인물에 대한 전기를 열전으로 담아냈으므로 그 시대 인물과 사회상이며 국가관도 엿보는 데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이는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하고 편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는 감수국사 김부식金富弼(1075~1151)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관찬사서이다. 김부식 외에도 최산보·이온문·허흥재 등 10명의 학자들이 집필과 편찬에 참여하였다. 편찬 체제를 보면 본기本紀 28권에는 신라·고구려·백제와

통일신라 때의 역사를 담았고, 연표年表 3권, 잡지雜志 9권, 열전列傳 10권 등 모두 50권으로 엮은 기전체紀傳體의 역사책이다.

『삼국사기』에 드러나는 파주는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지리지 등에 나오는 지명이요, 둘은 칠중성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고, 셋은 인물이다.

파주의 역사 지명에 대하여

지리지에는 파주 지역의 이름이 변해온 것이 드러난다.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 구역의 변화가 드러나는데 우리는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고려 때까지의 지역 변화를 읽게 된다.

내소군은 원래 고구려의 매성현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바꾼 것이다. 지금의 전주이다. 이 군에 속한 현은 둘이다. 증성현은 원래 고구려의 칠중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바꿨다. 지금의 적성현이다. 파평현은 원래 고구려의 파해평리(사)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바꿨고 지금도 그대로 쓴다.

來蘇郡 本高句麗買省縣 景德王改名 今見州 領縣二 重城縣 本高句麗七重縣 景德王改名 今積城縣 波平縣 本高句麗波害平吏(史)縣 景德王改名 今因之.(권35)

지금이라는 것은 『삼국사기』를 발간할 당시를 뜻하고 견주는 오늘날의 양주시 지역을 의미한다. 파주와는 서로 경계를 마주하는 지역인데 적성현과 파평현이 고려 당시에는 견주에 속한 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본래는 고구려의 매성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내소군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다만 파평현은 책에 따라 파해평리현과 파해평사현 등 두 종류로 나오므로 병기하였다.

교하군은 원래 고구려의 천정구현이었던 것을 경덕왕 때 바꾸었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이 군에 속한 현은 둘이다. 봉성현은 원래 고구려의 술이홀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바꾸었고 지금도 그대로 쓴다. 고봉현은 본래 고구려의 달을성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바꾸었고 지금도 그대로 쓴다.

交河郡 本高句麗泉井口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峯城縣 本高句麗述
 余忽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高峰縣 本高句麗達乙省縣 景德王改名 今因
 之.(권35)

우봉군은 원래 고구려의 우잠군이었는데 경덕왕 때 바꾸었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이 군에 속한 현은 셋이다. 임강현은 고구려의 장항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바뀌었고 지금도 그대로 쓴다. 장단현은 고구려의 장천성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바뀌었으며 지금도 그대로 쓴다. 임단현은 본래 고구려의 마전천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바꾸었고 지금의 마전현이다.

牛峯郡 本高句麗牛岑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臨江縣 本高句麗獐項
 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長湍縣 本高句麗長淺城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臨
 湍縣 本高句麗麻田淺縣 景德王改名 今麻田縣.(권35)

또한 이 지역이 고구려의 한산주에 소속되었으며,

매성군(마홀이라고도 한다), 칠증현(난은별이라고도 한다), 파해평사현(액
 봉이라고도 한다), 천정구현(어울매곶이라고도 한다), 술이홀현(수니홀이
 라고도 한다), 달을성현(한씨 미녀가 높은 산마루에서 봉화를 놓고 안장왕
 을 맞이한 곳이라 하여 후일에 고봉이라고 불렀다)

買省郡(一云 馬忽) 七重縣(一云 難隱別) 波害平史縣(一云 額) 泉井口縣
 (一云 於乙買串) 述余忽縣(一云 首泥忽) 達乙省縣(漢氏美女 於高山頭 點
 烽火 迎安臧王之處 故後名高峰)(권37)

매성군은 지금의 양주를, 칠증현은 적성, 파해평사현과 술이홀현은 파주를 나타

내고, 천정구현은 교하를 나타내며, 달을성현은 지금의 고양을 뜻하는데 행정구역이 변화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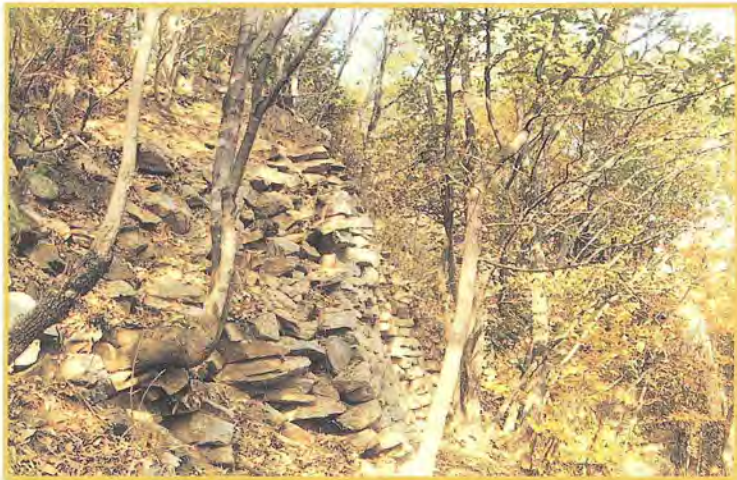
칠중성과 그 주변의 싸움 기록에 대하여

또 제사를 받들던 곳도 나오는데 칠중성七重城의 검악鉗岳이 소사小祀를 받는 곳으로 표기되었다(권32). 대사大祀를 지내는 세 산은 내력산(경주)·골화산(영천)·혈례산(경주)이고, 중사中祀는 오악五嶽과 사진四鎭·사해四海·사독四瀆에 지냈는데 오악은 동쪽의 토함산, 남쪽의 지리산과 서쪽의 계룡산, 북쪽의 태백산, 중앙의 팔공산이고 소사는 검악을 비롯하여 설악과 화악·부아악 등 24곳이다.

임진강의 하류를 칠중하七重河라고 묘사하거나 호로하瓠蘆河와 표하瓢河라고도 불렀다. 그래서 그 성들의 이름도 칠중성이요, 호로그루가 되었을 것인데 그 의미는 강의 굴곡이 많아서 붙은 이름일 것이다. 이 주변이 중요한 요새이므로

예로부터 많은 성을 쌓아 지키려고 하였다. 칠중성은 지표조사에서 시기를 달리하며 여러 차례 개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칠중성에서 북서쪽으로 3km 지점에는 육계토성이 자리를 잡았고, 칠중성의 남쪽 설마천 주변에는 감악산보루와 무견리보루가 있는데 이는 칠중성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전투를 벌였다는 증거이다. 또 인근의 아미성과 이잔미성(장좌리보루), 덕진산

칠중성 성벽



성과 호로고루, 당포성과 은대리성 등이 조사되었으므로 칠중성 또는 칠중하로 대변되는 이 지역이 오랜 세월 동안 주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칠중성과 호로고루가 주목되었을 때부터 존재한 성들도 있겠지만 이 지역의 중요성 때문에 나중이라도 추가하여 성을 더 쌓은 것으로도 보인다. 게다가 강 건너 연천의 학곡리에는 고인돌과 적석총 등의 옛 유적으로 보아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살았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다.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1년(백제 온조왕 18) 칠중하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18년 겨울 10월, 말갈이 습격해왔다.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하에서 그들과 싸웠다. 추장 소모를 생포하여 마한에 보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생매장하였다.(권23)

끔찍한 기록이지만 기원전 1년에는 이곳이 백제의 영토였으며 온조왕이 직접 와서 전투를 지휘한 것이다. 말갈의 추장을 사로잡아 마한에 보냈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백제 초기와 마한의 사이는 지금의 전라도 지역까지 일부 관장하였거나 최소한 협력관계에 놓였던 것을 알게 된다. 포로들을 모두 생매장한 것을 보면 말갈이 백제를 꽤나 괴롭힌 대상이었나 보다.

권5 「신라본기」와 권20 「고구려본기」에도 칠중성 전투가 나온다. 한 사건을 따로 기술한 것이어서 흥미롭다. 우선 「신라본기」를 보면,

7년(선덕여왕, 638) 봄 3월, 칠중성 남쪽에 있던 큰 돌이 저절로 35보 거리를 이동하였다. 가을 9월, 노랑색의 꽃비가 내렸다.

겨울 10월, 고구려가 북쪽 변경의 칠중성을 침범하였다. 백성들이 놀라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왕이 대장군 알천에게 명령하여 이들을 안심시켜 다시 모여 살도록 하였다.

11월, 알천이 고구려 군사와 칠중성 밖에서 싸워 승리하였다. 이 싸움에서 죽이거나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큰 돌이 저절로 움직였다는 것과 노랑색의 꽃비는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 태종무열왕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알천이 이곳에 와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놀랍다. 왜냐하면 알천은 진덕여왕이 죽은 다음 태종무열왕 김춘추보다 더 강력하게 왕으로 추대되던 인물이었고 그런 인물이 이곳 칠중성까지 와서 전투를 지휘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다음은 「고구려본기」에 나타난 같은 기사이다. 이때 이 지역은 신라의 영토였다. 고구려가 신라의 칠중성을 공격하려다가 알천에게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적은 것이다.

21년(영류왕, 638) 겨울 10월, 신라 북쪽 변경에 있는 칠중성을 침공하였다.
신라 장군 알천이 칠중성 밖에서 우리와 싸웠다. 우리 군사가 패배하였다.

파주의 역사 인물에 대하여

『삼국사기』의 「열전」에는 김유신·을지문덕·장보고·궁예·견훤 등 50명이 수록되었다. 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삼국에서 중요한 인물을 가려 뽑아 간단한 전기를 기록한 것이다. 물론 김유신처럼 당대의 뛰어난 인물은 더욱 자세히 기록하였지만 칠중성에서 공을 세운 필부匹夫에 대한 기록은 그만큼 칠중성이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다음은 「열전」에 나오는 태종무열왕 때 현령 필부에 대한 기록이다. 필부는 그 이름만으로는 한 사람의 평범한 남자지만 「열전」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목숨을 바치면서 이곳 칠중성에서 투혼을 발휘했으므로 「열전」에 실리게 된 듯하다. 칠중성이 배출한 영웅 필부에 대한 찬사는 특히 대단하다. 필부가 중심이 되어 20여 일 동안이나 잘 싸웠으므로 고구려군은 후퇴를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간첩 같은 역적 비삽比畝이 성 안의 비밀 정보를 알려서 고구려는 한층

더 기세를 떨치게 된다. 비삽의 간첩 행위를 알게 된 필부는 비삽을 죽여 보복하지만 이미 전세는 고구려 쪽에 기운 다음이었고 필부는 그만 여러 부장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한다. 또한 이 싸움의 실패 원인을 현령인 필부에 넘기지 않고 배신자인 비삽에게 돌렸으며 이미 죽은 필부에게는 관직을 추증해준다. 백제와의 전투에서 힘을 소비한 신라가 고구려와 맞설 때의 상황이므로 긴박감도 동시에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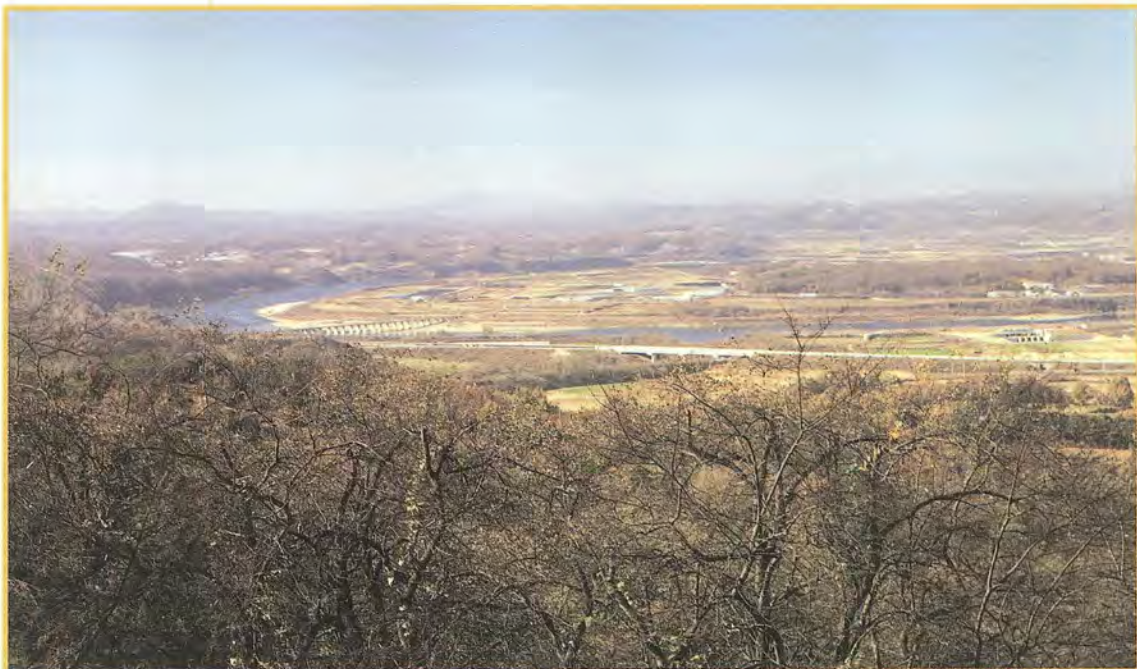
필부는 사랑沙梁 사람이다. 아버지는 존대尊臺 아찬이다.

태종대왕은 백제와 고구려와 말같이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입술과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 함께 우리나라를 침탈하고자 계획한다고 생각했으므로, 충성스럽고 용맹한 인재로서 그들에 대한 방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구하더니 머지, 필부를 칠중성七重城 관하의 현령으로 삼았다.

그 이듬해 경신(660) 가을 7월에 왕이 당나라 군사와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러자 고구려가 우리를 미워해, 저을 10월에 군사를 몰아와 칠중성을 에워쌌다. 필부는 한편 지키고 한편 나가 싸우기를 20여 일 동안이나 하였다. 적장은 우리 사졸들이 모두 열심히 싸워 자기 일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보고, 손쉽게 함락시킬 수 없겠다고 여겨 문득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고자 하였다. 이때 역적 대나마 비삽이 몰래 사람을 보내 적들에게 알리기를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힘이 다했으니 만약 공격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항복할 것이라 하니, 적들이 드디어 다시 공격하였다. 필부가 그 사실을 알고 칼을 빼서 비삽의 목을 베어 성 밖으로 던지고, 곧 군사들에게 포고해 말하였다.

“충신과 열사는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는 것이니 힘써 노력할 일이다. 우리 성의 존망이 이 한 번 싸움에 달렸다.”

곧이어 주먹을 휘두르며 한 번 호통하니, 병든 이들까지 모두 일어나 앞을 다투어 성 위에 올라갔으나 사기가 꺾이고 다해 죽고 다친 이가 반절이 넘었다. 적들은 바람을 이용해 불을 지르고 성을 공격하면서 들이닥쳤다. 필부가 상간上干 본숙本宿·모지謀支·미제美齊 등과 함께 적을 향해 맞서 활



칠중성에서 바라본 임진강
전경

을 쏘았지만 날아오는 화살이 빗발 같아 온몸이 찢리고 터졌으며, 피가 흘러 발꿈치까지 적시니 그만 쓰러져 죽었다. 대왕이 소식을 듣고 매우 비통하게 통곡했으며, 그에게 급찬의 관위를 추증해주었다.

문무왕 대에는 어느 왕대보다 칠중성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다. 662년(문무왕 2), 668년(문무왕 8, 고구려 보장왕 27), 또 671년(문무왕 11), 673년(문무왕 13), 675년(문무왕 15)에 이르도록 기사가 이어진다. 662년과 668년은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그 이후에 보이는 기사들은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전투 내용이다.

662년의 기록은 당나라와 연합 작전으로 고구려를 쳐들어가기 위해 칠중하를 건너는 장면이다. 극심한 추위에 강대국 당나라를 위해 군량미를 옮기는 약소국 가 군대의 처절함이 묻어나 있다.

(봄 정월) 왕이 유신, 인문, 양도 등 아홉 장군에게 수레 2천여 채에 쌀 4천 석과 조租 2만 2천여 석을 싣고 평양으로 가서 당나라군을 돕도록 명령하였다. 18일, 풍수촌(鳳樹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길이 멀어 미끄럽고 험하여 수레가 갈 수 없으므로 군량을 모두 소와 말에 싣었다. 23일, 칠증하를 건너 산양에 이르렀다.(권6)

「열전」의 김유신 조에는 이때의 상황이 더욱 자세히 묘사되었다. 장군으로서의 김유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는지 모른다.

문무왕 2년 12월 10일, 부장군 인문, 진복, 양도 등 아홉 장군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양곡을 싣고 고구려 경계로 들어갔다. 정월 23일에 칠증하에 이르렀다. 군사들은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먼저 승선하려는 자가 없었다. 유신이 말하였다. “그대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왜 여기에 왔는가?” 유신이 마침내 스스로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니 모든 장졸들이 그 뒤를 따라 강을 건넜다. 고구려 경내에 들어가서는 큰길에서 고구려 군에게 요격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험하고 좁은 길로 행군하여 산양에 도착하였다.(권42)

668년(문무왕 8)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671년(문무왕 11) 당나라와 신라의 싸움이 본격화되었다. 우선 대당총관 설인귀가 문무왕에게 편지를 보내온다. 신라를 위하여 중국의 군사를 일으키니 중국에 유익한 일은 적고 쓸데없는 일은 많았다고 하면서, 이는 선왕(태종무열왕)과의 신의를 저버릴까 두려워 중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강했던 적들이 이미 숙청되었고, 원수들은 나라를 잃었으며 그 병사와 말과 재물을 왕(문무왕)이 차지했다고 하면서 정신과 육체를 헛되이 쓰지 말고 병기를 녹이고 허욕을 버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문무왕은 평안한 국가의 기반을 버리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멀리는 중국 황제의 명령을 어기며 가까이서는 부친(태종무열왕)의 말씀을 어기면서 전쟁에 힘쓴다고 나무랐다. 또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원칙으로 돌아가 당나라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때에 따라 제향을 받을 것이요, 왕통이 바뀌지 않고

이어질 것이니 이러한 행운을 선택하고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왕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협박까지 하였다.

문무왕은 역시 편지로 이를 반박한다. 아버지인 태종무열왕이 648년(진덕여왕 2)에 당나라 태종을 만나 조칙을 직접 받았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내가 지금 고구려를 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너희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 끼여 매년 침해를 받아 편안한 날이 없음을 가련히 여겼기 때문이다. 산천도 토지도 내가 탐하는 것이 아니며 재물도 자녀도 모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 백제의 토지는 전부 너희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토록 하려 한다.” 이렇게 약속하였는데 너희 당나라가 왜 다른 욕심을 부리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하기 한 해 전 칠중성에서 당나라가 어긴 맹약을 들었다. 660년 필부의 전사 이후로 칠중성은 고구려가 지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건봉 2년(667)에 대총관 영국공이 요동을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한성 주漢城州에 갔으며 그곳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국경에 집합하도록 하였다. 신라가 단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기에 먼저 3회에 걸쳐서 정탐을 보내고 배를 잇달아 보내 당나라 군사의 상황을 알아보았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결같이 “당나라 군사가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우선 고구려의 칠중성을 공격하여 길을 열어 놓고 당나라 군대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 성이 거의 함락되려 할 때 영공의 사자인 강심이 와서 “신라 군사가 반드시 성을 공격할 필요는 없으니 평양으로 조속히 군대를 파견하여 병기와 군량을 공급하라는 대총관의 명령이 있었습시다”라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명령을 내려 군대를 모아 행군해서 수곡성에 당도하자 당나라 군사가 이미 회군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어 신라 군사도 그곳을 즉시 빠져 나왔다.(권7)

668년 신라가 단독으로 선봉이 되어 먼저 큰 진을 격파하니 평양 성중의 기세가 꺾였다. 그후 영공이 다시 신라의 정예 기병 500명을 선발하여 먼저 성문을

로 들어가 마침내 평양을 격파하는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영공이 “신라가 이전에 군사의 동원 기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며 “지금 신라에는 아무런 공이 없다”고 생떼를 쓴다. 약속은 자신들이 어겼고 공은 우리 신라가 세웠는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오죽했으면,

아아! 고구려와 백제가 평정되기 전에는 사냥개처럼 심부름을 시키더니
돌집승이 없어진 지금에는 도리어 삶아 먹히는 사냥개의 박해를 당하고 있
도다.(권7)

라고 문무왕이 탄식을 했을까? 673년(문무왕 13) 윤 5월에는 당나라의 연산도총관대장군 이근행이 호로하에서 고구려 군사들을 격파하여 수천 명을 사로잡았으며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신라로 도주하게 된다. 그러나 당나라의 교활한 군대 운용 같은 뼈아픈 추억이 같은 해 9월의 대승으로 이어진다. 당나라 군사가 말갈, 거란 군사와 함께 와서 북쪽 변경을 침범한 것이다. 아홉 번의 전투에서 신라가 모두 승리하였고, 2,000명의 머리를 베었으며, 호로·왕봉 두 강에 빠져 죽은 당나라 군사가 이루 셀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패배를 설욕하려는 듯 675년(문무왕 15) 2월 당나라의 유인궤가 신라 군사를 칠중성에서 격파한다. 칠중성과 그 주변 임진강은 전장의 중심에 섰던 것이다.

칠중성과 호로하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칠중성에 오르면 남북 분단의 현상이 뼈저리게 느껴진다. 칠중성 건너에 북한 땅이 가까이 보이며 호로그루 건너에는 지금도 미군이 주둔한다. 또 이 일대는 6·25전쟁 때 인민군 전차부대가 도하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서울과 가장 가까우면서 강의 수심이 제일 낮은 곳이어서 선택되었고, 이는 또 인해전술의 중공군이 건너온 강이기도 하다. 그때 칠중성에는 영국군이 자리를 잡았다. 성 때문에 캐슬고지(일명 148고지)라고 명명하고 중공군과 한바탕 격전을 치렀던 곳이다. 백제 초기부터 전투를 벌였고, 신라와 고구려가 싸웠는가 하면, 신라와 당나라가 싸우고, 영국군과 중공군도 싸운 곳이고, 남과 북이 싸웠으며, 지금도 대치하는 중이다. 게다가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부터 신라의 알천이며 김유신 등 역사적인 인물들이 와서 전투에 참여

한 곳이기도 하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녀간 곳이요, 그 발자취를 『삼국사기』
에 확실하게 남겼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의 땅과 강이 칠중성이요
임진강이다.



감악산과 물자비沒字碑와 설인귀

정승모_지역문화연구소 소장

감악산의 역사적 위상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산으로 치악산雉岳山·백악산白岳山 등과 함께 감악산紺岳山(또는 紺嶽山)을 든다. 경기의 오악五嶽을 들 때도 송악松岳·운악雲岳·북악北岳·관악冠岳과 더불어 감악紺岳을 든다. 감악산에는 감악사紺岳寺·신암사神岩寺·운계사雲溪寺 등의 절이 있었다.

파주·양주 그리고 연천의 3개 군 경계에 걸쳐 있는 감악산과 그 일대는 굳이 별도의 방어 병력을 두지 않아도 접근이 힘든 곳이어서 역사 이래로 방어를 위한 천연 요새가 되었다. 감악산 정상에 서면 북으로 임진강을 굽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적성면 구읍리 중성산重城山에 칠중성七重城을 둔 것은 감악산보다 덜 험한 곳이고 그래서 침입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국경 분쟁이 극심하던 삼국시대에는 치열한 영토 싸움의 현장이었다. 이 중성산은 해발 150여 m도 채 안 되는 낮은 산이지만 임진강과 감악산 그리고 파평산과 송악산까지도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과거 이러한 명산들은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전쟁을 통해 그 중요성을 경험하면 할수록 산에 대한 경외심은 더 깊어지고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발전한다. 북방민족으로부터 시달려 온 고려와 그 이전 시기는 말할 것도 없다.

신라 이래로 나라에서는 감악산에서 소사小祀의 격으로 제를 지내왔다. 산 위에 사우祠宇가 있어 봄 가을로 향축香祝을 내렸다. 『삼국사기』(권32, 지志1 제사祭祀)에도 소사를 지내는 곳으로 겸악鉗岳(감악의 옛이름)의 칠중성이 들어 있다.

신라인들은 당나라 장군 설인귀를 산신으로 모셔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를 사당과 같은 별도의 건물에 모셨는지는 불분명하다. 이 점이 분명해지는 시기는 1011년(현종 2)이다. 이때에 거란 병사들이 장단까지 쳐들어왔는데 감악산 신사의 모습이 기마병과 말들이 서있는 것처럼 보여 감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왕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신사神祠를 수리하라고 명을 내렸다. 이상의 내용은 『고려사』에 나온다. 어떤 기록에는 이때가 현종 원년, 즉 1009년이라고 나온다.

1287년(충렬왕 13)에는 원나라가 고려를 토벌하려 할 즈음에 감악산신, 즉 설인귀의 차남을 도만호都萬戶로 봉했는데, 설인귀 산신의 음덕을 바라기 위한 뜻에서라고 했다. 도만호는 충렬왕 때 설치되어 경찰업무를 관장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의 장관직이다. 이제는 산신이 설인귀 개인에서 가족 단위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증보문헌비고』(권21, 예고禮考8)에는 1277년(충렬왕 3)에 감악산 제사를 금지시켰는데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고려사절요』(권23)에는 충선왕 때인 1311년에 감악산에서 제사지내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때의 풍속이 귀신을 숭상하여 공경과 사대부와 서인이 모두 직접 감악산에 제사지냈는데, 지중문하사知中門下事 민유閔儒와 전소윤少尹 김서지金瑞芝가 감악산에 제사지내려고 장단長湍 나루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항상 일시적이다. 그리고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비교적 외침이 덜 심했던 조선에 들어와서 감악산의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 한양 천도로 임진강 사수가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인 1393년(태조 2) 1월 21일 예조禮曹에서 전국 명산의 신에게 작위를 내렸는데, 이때 감악산은 삼각산, 백악의 산들과 더불어 호국백護國伯에 봉작되었다. 중기에 해당하는 1531년(중종 26) 5월 22일에는 경기 근방에서 영험이 있는 곳을 골라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동안 예조가 제를 지내 가장 영험이 있었다고 올린 곳이 개성부의 송악산, 장단의 오관산五冠山과 덕진德津, 양주楊州의 양진楊津 그리고 적성의 감악산이었다.

조선 세종 때 인물인 김반金津은 『혜민당기惠民堂記』에, “서울에서 동북쪽으로 설마현雪馬峴을 넘어 수십 리 지점에 적성현이 있는데, 동쪽으로 감악 높은 산을 기렸고, 서쪽으로 장단부 큰 강을 늘렸다. 지역이 가장 궁벽하고 좁아서 백성의 삶이 가난하였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11 적성현)에 나온 기사다.

이상에서 보듯이 감악산은 오래전부터 국가가 주도하여 제의를 올리는 국전國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설인귀를 감악산신으로 모신 지도 오래다. 그리고 둘의 관계를 별 의심 없이 하나로 인식하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 둘로 분리되는 시기도 있었다.

감악산과 설인귀

설인귀는 중국 당나라 장수로 강주絳州 용문龍門에서 출생하였다고 한다.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하진河津이다. 『자치통감』에서는 그에 대해 당나라 무장 설안도薛安都의 6세손으로 이름은 예禮라고 하였다. 그의 생몰년에 대해서도 613년에 태어나 682년에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정보는 다음의 고구려 관련 기사 말고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설인귀는 645년(보장왕 4)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군졸로 응모하여 안시성 전투에서 공을 세워 유격장군遊擊將軍으로 발탁되었다. 당나라 고종 때는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의 총독으로 659년에 고구려를 침공하였다가 횡산橫

山에서 고구려 장군 온사문溫沙門에게 패하여 돌아갔다.

666년에 당나라 고종은 이적 등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여 16개 성을 모두 함락시켰다. 668년에는 설인귀가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으로 추가되어 참전하고 신라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고구려를 쳐들어갔다. 나당연합군에게 왕이 나가 항복하니 이적이 왕과 왕자, 대신 등 20여만 명을 붙잡아서 돌아갔다. 이로써 고구려가 막을 내린다. 설인귀는 고구려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당나라에서는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설인귀를 도호사都護使로 삼아 유민을 진압하도록 하였다. 설인귀는 671년(신라 문무왕 11) 계림도행군총관鶴林道行軍總管으로 신라를 침입했으며, 675년에 신라의 천성泉城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이듬해 다시 침략했으나 소부리所夫里의 기벌포伎伐浦에서 패했다. 그는 681년 과주자사瓜州刺史, 대주도독代州都督으로 임명되었으며, 후에 본위대장군本衛大將軍으로 임명되고 평양군公平陽郡公에 봉해졌다.

설인귀는 우리 고대사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한 그가 앞서 언급한 대로, 그리고 다음의 기사나 자료에서 보듯 이후 감악산신으로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 현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소정방蘇定方을 모신 사당이 있었듯이 예외적이지도 않다. 당시는 지금과는 달리 국가나 민족 개념이 없었거나 강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1430년(세종 12) 8월 6일에 예조에서 각도 산천 단묘 순심 별감各道山川壇廟巡審別監이 보고한 내용에서 나오는 진흙 상[泥像]은 설인귀 소상塑像이다.

적성현積城縣 감악산紺岳山 신은 위판位版이 없고 니상泥像을 사용하고 있
사운데, 주신主神 부처夫妻 양위兩位와 자신子神 부처夫妻를 아울러서 모두
6위이며, (후략) (『세종실록』 권49)

양촌 권근의 손자 권람權攄(1416~1465)은 1464년에 신병으로 감악산신 설인귀에 치성을 드릴 때, 비바람이 몰아치자 “당신(설인귀)과 나는 세력이 서로 같은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몰아치는가” 하고 호통쳤다고 한다. 그는 불교를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명신名神을 숭배하여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이 당시 설인귀는 이

미 감악산신으로 모셔지는 존재였다.

앞서 언급한 1430년(세종 12) 8월 6일 『세종실록』(권49) 기사 중에 예조에서 “감악산·의관령義館嶺·송악산의 신상神像은 철거하지 말고 그 근처에 적당한 땅을 택하여 따로 나라에서 제사를 행하는 사당을 세워 위판을 설치하게 하고, 그 은그릇은 타례他例에 의하여 놋그릇[鑪器]으로 대신하도록 하소서”라고 건의를 하는데, 이때 조선 정부의 방침대로 소상은 철거되고 별도의 설인귀 사당이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높은 산 정상에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별도의 사당을 지은 시기는 더 늦을 수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11 적성현) 사묘조에는 민간에서는 신라 때 당나라 장수 설인귀를 산신으로 모셨다고 전해지며, 조선에 들어와 명산이라고 하여 감악사에서 중사中祀를 지내게 하여 봄 가을로 향축을 내렸다고 하였다. 조선 초의 상황은 설인귀는 산신이고 감악산에서는 나라 제사인 중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비碑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물자비에 대해

물자비는 적성면 객현리 산25 감악산 정상에 세워져 있는 비로, 글자를 새긴 흔적은 있는 것 같으나 물자沒字되어 한 글자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붙은 이름이다. 당장唐將 설인귀를 위한 비라고도 하며 민간에서는 ‘빗돌대왕비’, ‘뺨돌대왕비’ 등으로 부른다.

재질은 화강암이며 신라 때의 순수비巡狩碑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순수비라면 진흥왕대(540~576)이거나 진평왕대(579~632)일 수 있다. 그 정체도 연대도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논의로만 공전하다가 일단 파주시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된 상태다.

비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이수(비 머리)	가로 92.5cm × 세로 37.5 cm × 높이 25cm
비신	높이 162cm
너비	상단 75.5cm, 중단 74cm, 하단 70cm
두께	상단 16cm, 중단 20cm, 하단 19cm
기단	가로 190cm × 세로 159cm로 3단이며, 3단의 높이 8cm

감악산 제의祭儀의 변화

소사든 중사든 감악산에서 행해졌던 제의의 주체는 국가였다. 1416년(태종 16) 5월 25일에 국무당國巫堂과 감악산·덕적산·목덕산 삼성三聖에 기양제祈禳祭를 행하였다고 하였는데 국무당이라는 존재를 통해 기양제가 국가가 주도한 제의임을 알 수 있다.

미수 허목許穆(1595~1682)이 남긴 문집 『기언記言』(권27)의 산천山川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날이 밝자 감악산 정상 벼랑에 올랐다. 신정神井에서 물을 마시고 감악사紺嶽祠에 이르렀다. 어른 키 세 배되는 석단石壇이 있고 그 위에 산비山碑가 서 있었다. 너무 오래되어선 지 글자가 모두 지워졌다. 옆에는 설인귀사당薛仁貴祠堂이 있는데, 혹자는 왕신사王神祠라고 한다.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은 음사淫祠다. 그 신은 화복禍福을 일으키는 요상한 힘이 있다고 하여 민간에서 받들어 모신다.

이 기사를 보면 감악산에는 나라에서 중사의 격으로 제사를 지내는 감악사가 있고, 한편으로는 민간에서 설인귀를 모시기 위해 만든 사당이 별도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세종 때 내려진 조치가 이후 어느 때인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몰자비와 신정이라고 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우물도 확인된다.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1742년에 신유한申維翰(1681~1752)이 감악사 봄제사[春享]를 지내기 위해 감악산에 등반하고 기록을 남겼는데, 1세기 전에 미수 허목이 본 것과 같다. 그가 본 산 정상에는 사祠와 단壇, 그리고 흙돈대 위에 고비古碑가 있었고, 옛 설인귀 사당이 있었다고 했다. 그의 여정과 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악산 몰자비

임술壬戌(1742) 2월 11일에 제향을 위해 하루 전날 일찍 새벽 무렵 대축大祝을 맡을 사람과 함께 적성현에 이르렀다. 산 정상에 오르니 사옥祠屋이 있고 위판位版이 모셔져 있었다. 사옥 아래에는 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방 10여 척이 되었다. 사경四更, 즉 새벽 한두 시경에 향례享禮를 올렸다.

사우 왼쪽으로 흙으로 만든 돈대가 있고 그 위에 고비古碑가 서 있다. 높이는 한 장丈, 즉 160여 cm가 넘고 둘 짝은 숨씨가 매우 가지런하였다. 얼마나 마모되었는지 한 글자도 보이지 않았다. 스님이 하도 오래되어 그런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말하기를 사우 동편으로 당나라 장수 설인귀묘薛仁貴廟가 있는데 지금은 총사叢祠(음사와 같은 뜻이다)가 되었다.

이상은 신유한의 문집인 『청천집靑泉集』(권4) 감악산기紺岳山記에 나온다.

당시 감악산 춘향제는 춘추春秋 중월仲月, 즉 음력 2월과 8월에 지냈다. 제사 때 놓은 제물은 다음과 같다.

- 반飯: 도稌(찰벼), 서黍(이장)
- 희생[牲]: 수돼지[牡豕]
- 주과포: 주酒, 과일, 포脯, 숙鱠(말린 물고기)
- 향축: 향香, 축祝, 폐幣
- 제관: 헌관獻官, 대축大祝 각 1원員

18세기 후반 이후의 상황을 전해주는 『증보문헌비고』(권21)나 『여지도』(9. 적성 감악산)의 기사도 위와 같다.

산 위 석봉石峯에 감악사紺嶽祠가 있는데 석단石壇의 높이는 3장丈이며 그 위에는 비碑가 있는데 오래되어 글자가 없어졌다. 곁에는 설인귀사薛仁貴祠가 있다.

19세기 중반경의 상황을 보여주는 『적성현지』(1842~1843)에 나오는 현 지도에는 감악산묘를 제당祭堂이라고 표기하였다. 이 책의 단묘조와 고적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단묘壇廟」

- 사직단社稷壇: 신실神室 1칸을 1787년 가을에 고쳐 지었다. 1809년 가을에 석축石築을 쌓고 기와를 갈았다.
- 여단厲壇: 관아 북쪽 2리 떨어진 곳에 있다.
- 성황단城隍壇: 관아 남쪽 2리 떨어진 곳에 있다.
- 감악산묘紺嶽山廟: 감악산 정상에 있다.
- 성황신실城隍神室: 객사客舍 북쪽에 있다.

「고적古蹟」

- 물자비沒字碑: 감악산묘紺嶽山廟의 주변에 있다. 세속에서는 설인귀사적비薛仁貴事蹟碑라고 하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글자가 지워져 고증하기 힘들다.
- 현문상玄門像: 감악산 남쪽 암하巖罅(비위가 벌어진 곳)에 돌로 만든 작은 감실[石龕]을 두고 그 위에 편편한 돌 조각을 세운 다음 전면에 신인상神人像을 그렸는데, 아름다운 수염이 있는 부처 얼굴이다. 후면에는 다음과 같은 35자를 새겼다. “玄門獨立老聖君 守中抱一大道尊 作帝玉山萬古存 木子聞基建等身 化戊子月在申玩” 이 시의 뜻은 노자를 가리키는 듯하나 자세히는 모르겠다.

이때의 기록은 이전 것과 조금 다른데, 우선 설인귀사薛仁貴祠 또는 설인귀묘에 해당하는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대신 고비古碑 또는 물자비라고 하던 비를 설인귀사적비薛仁貴事蹟碑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설인귀를 모시는 사당이 없어지자 이를 대신하여 비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1871년에 작성된 『적성현지』의 내용도 이전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단지 이 읍지에는 감악산묘는 한 칸이고 음력 1월과 2월 그리고 8월에 나라에서 내려주는 향축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또한 성황신실에 대한 언급도 추가되었는데, 한 칸이며 기사년에 새로 세운 것이라고 하였다. 기사년은 1809년으로 추정된다.

성황신실과 성황단과의 관계나 그것과 사라진 설인귀사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이상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 아쉽다. 이후의 구전자료나 무가巫歌에서 보이는 내용에 근거해보면 감악산 위에는 더 이상 설인귀사당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고비가 설인귀를 모시는 신앙물로 변해간 것으로 보인다.

일제 때 무속 연구 자료들을 보면 경성京城의 12제차祭次 중에 세 번째 대목인 ‘산마누라’ 중 “적성은 감박산에 천충대왕天聰大王 양마누라 아니시랴”라고 하

는 것과 창부타령 중 “감악산 천총대왕 뢰신 광대”라는 내용이 나온다.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와 아카마츠 지쵸[赤松智城]는 『朝鮮巫俗の研究』(1937년)라는 책에서 “천총대왕은 세속에 비석대왕이라고 하며 무인[武人]의 신령으로, 적성 감악산 위에서 제사하며 특히 양주 방면에서는 제일 높은 신이다”라고 하였다. 무당의 본산이라고 하는 덕물산의 도당 좌측 벽에 감악산 천총대왕의 화상이 걸려 있는 것도 대왕신의 높은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감악산 주변에는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해온다. 그 중에는 지명과 관련한 설화도 있다. 마지리[馬智里], 무건리[武健里], 설마리[雪馬里] 같은 지명들이 그 예다. 특히 설마리는 설마치[薛馬馳]라고 하여 적성에서 태어난 설인귀가 무예를 닦던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설화는 의미가 있는 자료이지만 시대가 불분명하고 진위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믿고 인용할 만한 사료는 못 된다.

지금까지의 서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 이래로 고려까지 소사 또는 중사의 대상으로서의 감악산신과 당나라 장수 출신이지만 감악산에 머물면서 전쟁 등 위기 때 영험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설화의 주인공 설인귀가 일치하였다. 즉 설인귀가 감악산신이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에 들어와 중사를 모시는 감악사 또는 감악산묘를 지음으로써 설인귀사는 관에서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음사로 몰렸고, 이것이 별개의 건물로서 존재해면서 18세기 후반까지 이어졌다. 18세기 말 또는 19세기에 들어와 설인귀사당이 없어졌다. 그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개축이나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민간에서는 후에 이를 대신하여 설인귀를 고비로 모시게 된 것이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의 쟁투지 칠중성

심광주_토지박물관 기획운영팀장

칠중성의 지정학적 요건과 고고학적 특징

적성에서 37번 국도를 타고 서북쪽으로 2km 정도 가면 고개 넘어 서편으로 적성향교 팻말이 보이는데 칠중성은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있다. 칠중성이 있는 중성산은 감악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으로 해발 147.7m의 소봉이지만 북쪽으로 임진강변에 이르기까지 더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주월리와 가월리를 포함한 임진강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문산이나 파주에서 전곡과 연천으로 이어지는 37번 국도와 개성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349번 지방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특히 칠중성의 동북쪽 전방에 있는 임진강의 가여울 또는 술탄이라 불리는 지점은 특별한 도하 장비 없이도 말을 타거나 걸어서 도하할 수 있는 지점으로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의 서북 지방과 중부 지방을 이어주는 간선도로가 지나가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 지역이 백제의 영역에 속하였을 때에는 난은별難隱別이라고 하였으며, 고구려의 영토였을 때는 칠중현이라 불리었다.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한 이후에도



칠중성에서 본 임진강 일대

칠중현이라 불리다가 757년(경덕왕 16) 중성현으로 고쳤으며, 내소군(현 양주시 주내면 고읍리)의 관할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칠중성은 중성산 북쪽의 8부 능선을 휘돌아 남쪽으로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내려오다가 동쪽 부분에는 작은 계곡을 감싸 안고 있다. 성의 전체적인 형태는 북동-남서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에 가까운 포곡식의 석축산성이다. 성의 전체 둘레는 대략 700m 내외인데 이것은 조선시대 지지 자료에 기록된 2,256척을 영조척으로 환산한 길이인 704m와 거의 유사하다. 성은 서쪽 부분에 비해 동남쪽 진입로 부분이 가장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북동쪽이 가장 높다. 칠중성은 '칠중'이라는 명칭 때문에 성벽이 여러 겹으로 된 복곽성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조사 결과 성벽은 단일성벽으로 확인되었다. 칠중성이 구축되기 전인 1세기 대에 이미 칠중하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칠중성이라는 명칭은 이 지역을 지나는 임진강의 명칭인 칠중하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의 정상부는 군부대의 진지구축 등으로 상당 부분 삭토되어 많이 훼손되었지만 성벽의 흔적은 잘 남아 있다. 현재 성벽이 노출되어 있는 곳은 대략 10~15m 정도의 폭으로 무너진 성돌이 흩어져 있으며 성벽의 안쪽에는 5~6m의 회곽도가 조성되어 있다.

성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동남쪽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문지가 있었던 부분은 군사용 도로로 인하여 잘려나가 석축성벽의 단면이 노출되어 있으나 잡목이 우거지고 토사에 덮여 있어 정확한 구조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동문지의 안쪽에는 낮고 평탄한 곳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갈대가 많이 자라고 습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집수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벽의 안쪽에는 많은 군용 참호가 파여 있으며, 참호의 벽면에서 많은 양의 와편과 토기편이 출토되고 있다. 와편 중 수키와는 아미성이나 이성산성에서 출토되는 것과 같은 유형의 당초문기와가 특징적이며, 암키와편에는 사격자문, 집선문, 승석문 등의 다양한 문양이 발견되는데 문양이나 제작기법을 고려할 때 대체로 신라-통일신라 시기의 와편이 주류를 이룬다.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 때 수습된 유물을 보면 내부에 모골흔이 있고 적갈색을 띠는 고구려 와편의 특징을 보이는 것도 확인되었다. 성내에서는 다량의 토기편이 발견되고 있으나 대부분 단각고배나 완, 인화문합 등 신라토기류가 주종을 이룬다. 임진강 하류 지역의 성동리 고분군에서 6세기 중엽의 토기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6세기 중엽 한강 하류 지역을 확보한 신라는 몇 년 안에 칠중성 지역으로 진출하여 성곽을 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칠중성에서는 백제계의 유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일대가 백제의 영역이었을 때에는 임진강에 접하여 구축되어 있는 육계토성

칠중성 성벽





철중성 출토 유물



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곳에는 방어시설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소규모의 보루나 목책 등이 구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지나 금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이곳이 고구려의 영역에 속하였을 때에도 이곳에는 성곽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있더라도 정상부를 중심으로 보루 형태의 소규모 방어시설 정도였을 것이다. 현존하는 석축성은 성벽을 쌓는 방법이나 성벽 시설물 등을 고려할 때 신라가 이곳을 장악한 이후 구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지정학적인 요건이나 역사적인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철중성은 삼국 중 신라에 의해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임진강이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을 이루고 있었던 120여 년 동안 철중성은 임진강 수계를 방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입증하듯 『삼국사기』에는 철중성을 둘러싼 고구려와 신라, 당나라와 신라 사이의 전투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

철중성을 둘러싼 삼국의 쟁투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이름만 있고 어디인지 알 수 없는 261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위례성을 비롯하여 관미성·옥리하·살수·백암성 등 중요한 역사적 중심지의 상당수도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칠중성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지명 중 위치 비정에 이견이 없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고구려·백제·신라 삼국 중 이 지역을 처음 차지한 것은 백제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6년(온조왕 13)에 백제의 강역은 이미 북으로는 패하(예성강), 남으로는 웅천(안성천), 서쪽으로는 대해(서해), 동쪽으로는 주양(춘천)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국가세력의 확장과정이나 고고학적인 증거를 고려할 때 온조왕 대에 이렇게 넓은 지역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지만 연천 일대에서 확인되는 무기단식 적석총의 존재 등으로 미루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백제가 이 지역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백제 초기 임진강 유역에는 말갈이나 낙랑의 침략이 빈번하였다. 이 시기 말갈로 지칭되는 동예족들은 원산만 지역을 근거지로 하였는데 추가령구조곡을 이용하여 형성된 고대 교통로를 따라 평강과 철원을 지나 임진강·한탄강 유역에 자주 등장하였다. 백제에서는 이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칠중하와 공목달 등 적성과 연천 일원과 남한강과 북한강 상류 쪽에 주로 목책이나 토성 위주의 성을 쌓았다. 또한 중국의 군현인 낙랑군과 대방군 역시 백제의 성장을 막기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하여 낙랑 스스로 침략하기도 하고, 말갈을 부추겨 백제를 공격하게 했다. 백제는 낙랑과 대방군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수성·병산책·독산책·구산책 등을 설치하였는데, 성을 쌓은 곳은 대체로 철원·연천 등 낙랑으로 통하는 길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에 칠중하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

겨울 10월 말갈이 갑자기 쳐들어왔다.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하에서 맞아 싸워 추장 소모를 사로잡아 마한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 적들은 모두 구덩이에 물어버렸다.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18년)

임진강은 정파강·구연강·신지강·칠중하·호로하 등 위치에 따라 수십여 개의 이름이 있었는데 칠중하는 현재의 육계토성 부근의 임진강을 지칭한다. 칠중하 변에 있는 백제토성으로는 육계토성이 있다. 육계토성은 임진강에서 수십

이 낮아 주요 도하 지점의 하나였던 가여울과 서쪽의 두지나루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있었다.

육계토성은 임진강 남안의 낮은 구릉성 충적대지(해발 20m)에 축도된 토축성으로 내성과 이를 둘러싼 외성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평면 형태는 북동-남서 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타원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의 둘레는 약 1,945m이며 성 내부에서는凸자형 주거지와 呂자형 주거지 등 백제 주거지에서 3~4세기 대를 중심으로 하는 다량의 백제 유물과 약간의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말갈의 침입을 백제가 칠중하에서 맞아 싸울 당시 육계토성이 있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기록의 내용이나 육계토성에 대한 발굴 결과로 볼 때 말갈의 침입이 있었던 기원 1년 전후는 아직 육계토성이 축성되기 이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백제는 고이왕 대에 이르러 경기도 지역의 대부분을 백제의 권역에 포함하게 되었으며, 근초고왕 대에는 황해도에서 경기·충청도를 거쳐 전라도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확보하게 된다. 고구려의 남진으로 낙랑과 대방이 멸망함에 따라 4세기 대에 백제는 드디어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 백제가 고구려와 공방을 벌이는 주요 전투 지역은 치양성(황해도 배천)·수곡성(황해도 신계)·패하(예성강) 등 예성강 이북 지역의 황해도 일대이다. 심지어 백제는 평양성까지 진격하여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등의 전과를 올리기도 한다. 이것은 4세기 대에는 백제의 국경이 예성강 지역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은 이미 백제의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임진강 유역에서의 전투 기록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제가 예성강 이북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칠중하와 호로하의 여울목은 중요한 교통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한성-적성-치양, 수곡 등으로의 교통로가 개설된 이후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육계토성이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육계토성이 임진강 방어의 주기능을 담당할 당시 칠중성에는 이렇다 할 방어시설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는 장수왕 대에 이르러 북위와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남조와도

통교를 하는 등 안정된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427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고, 475년(장수왕 63)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는 등 본격적인 남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고구려는 아산만에서 영일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진출하였으며, 551년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하여 한강 유역에서 후퇴할 때까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지역이 고구려의 영역에 속하였을 당시에도 칠중성은 구축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칠중성의 입지 및 기능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을 방어하기에는 유리하지만,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을 방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진강을 배후에 두고 감악산의 능선 말단부에다 배수진을 치고 성을 축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백제가 영역을 예성강 유역까지 확장한 이후부터 고구려의 남진 시기까지 칠중성은 아직 역사의 무대에 주역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칠중성이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임진강 유역의 지정학적인 특성이 그 빛을 발하게 되는 6세기 중엽 이후부터이다. 신라는 551년(진흥왕 12)에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의 10개 군을 빼앗고, 553년에 백제가 점령하고 있던 한강 하류 지역마저 급습하여 탈취한 뒤 그곳에 신주를 설치하였다. 신주는 새로 확보한 한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 일원을 경영하기 위한 이었다.

한강 유역 진출 이후 신라는 파죽지세로 영토 확장을 계속하여, 서북쪽으로는 임진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북쪽으로는 558년 황초령·마운령 순수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함경도까지 진출하였고, 남으로는 대가야를 병합하면서 비약적인 영역 확장을 진행하였다.

한편 임진강 유역에서부터 한강 유역에 이르는 교통로 상에 집중적으로 보루를 구축하며 거점을 확보하였던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을 맞아 본격적인 저항을 할 겨를도 없이 임진강 유역까지 후퇴를 단행하였다. 고구려군이 신라와 백제의 공격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죽령 이북에서 임진강 이남 지역까지 500여 리의 땅을 손쉽게 내어주고 겨우 임진강 유역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구려의 대내외적인 여건과 임진강 유역의 자연지리적인 특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6세기 중엽 고구려는 귀족사회의 내분과 서북쪽 국

경 방면에 출현한 돌궐에 의한 압력 때문에 남쪽에까지 힘을 기울일 겨를이 없었으며, 임진강 이남 지역에 구축하였던 고구려 방어시설이 교통로 확보가 주목적이었던 보루 위주의 소규모 군사시설들이어서 방어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고구려는 신라의 한강 유역 전역에 대한 지배를 인정하게 되며, 이로 인해 진평왕 이후 고구려 멸망 시까지 120여 년 동안 서북 지역에서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선은 임진강으로 구분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가 임진강을 국경으로 삼은 것은 임진강이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적을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임진강·한탄강 유역에는 철원·평강 지역에서 폭발한 화산의 용암이 흐르면서 10~30m 두께에 달하는 용암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위에 강이 흐르면서 용암대지를 침식하게 되었다. 용암은 그 물리적 특성상 주상절리 현상 때문에 수직절벽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임진강과 한탄강 양안에는 수십 km 구간에 걸쳐 10~15m 높이의 절벽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천연의 성벽 기능을 하여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적의 침입을 능히 막아낼 수 있었다.

또한 임진강의 고랑포에서부터 하류 지역은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는 감조 구간으로서 강심이 넓고 수량이 많아 쉽게 도강이 어려운 것도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런데 임진강에는 샛강이 흘러드는 구간마다 석벽 사이에 통로가 형성되고, 샛강이 운반해온 모래와 자갈이 쌓이면서 넓은 여울목이 형성되어 많은 인원이 짧은 시간에 강을 건널 수 있는 교통로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이러한 도강 지점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던 성곽들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성곽을 구축하여 국경방어를 강화하였다. 임진강의 남쪽에서부터 초평도가 있는 북쪽에 덕진산성이 구축되었으며, 두루봉보루, 호로탄과 술탄이 있는 곳에 호로고루, 상류로 올라가면서 당포성, 무등리1, 2보루 등을 구축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 특히 호로고루와 무등리 2보루에서는 다량의 탄화곡물이 출토되어 이곳에 대규모 군량미 창고를 구축하여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비축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한탄강 북안에 구축된 은대리성이나 전곡리토성은 이 시기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시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도감포 상류 지점부터도 고구려의 국경선은 한탄강이 아니라

임진강을 중심으로 하여 재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호로그루의 경우에는 당초 목책이 구축되어 있었던 방어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하여 성 내부를 평탄하게 조성하고 지상구조물인 높이 10m에 길이 90m에 달하는 동벽을 쌓아 방어력을 보강하였다. 당시에 축성된 호로그루와 당포성의 동벽을 보면 성벽의 기저부와 중심부는 판축을 하고 성벽의 내외면은 석축을 하는 등 석축성벽과 토성의 장점을 결합한 고구려 특유의 발달된 축성기법이 확인되고 있다. 성 내부에는 창고와 병영을 구축하였는데 와당을 사용한 붉은색의 기와건물에 건물바닥에는 전돌까지 깔아놓은 수준 높은 건물이 확인되어 호로그루가 고구려 남쪽의 국경을 총괄하는 사령부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신라는 고구려군의 뒤를 따라 임진강 유역까지 진출하고, 임진강 이남 지역을 따라가며 고구려 성곽에 대응되는 지점에 새로운 성곽을 구축하였다. 임진강의 최하류 지역이자 한강과 임진강의 분기점에 해당되는 지점에는 아마도

고구려 남쪽 국경을 총괄하는 사령부 기능을 하였을 호로그루



백수성白水城 또는 천성泉城으로 불렸을 오두산성이 구축되었고, 연이어서 봉서산성·이잔미성·칠중성·옥계토성·대전리산성 등 둘레 1km 내외의 대형산성이 지형에 따라 약 5~10km 거리를 유지하며 구축되었고, 그 사이사이에 100~300m 내외의 보루를 설치하여 주요 교통로를 차단하는 등 서북쪽 국경방어 시스템을 완비해 나갔다.

이 시기에 쌓은 신라성들은 숙련된 기술자 집단에 의하여 구축된 것처럼 구조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위치상으로 북쪽을 방어하기 유리한 주요 길목의 해발 100~200m 지점에 화강편마암계의 성돌로 정연하게 구축하였다. 체성벽에는 보축성벽이 확인되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하는 현문식懸門式의 성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진강변의 옥계토성처럼 기존의 백제토성을 사용하지 않고, 한강변에 구축된 이성산성과 거의 같은 입지에 해당하는 칠중성에 새로 성곽을 구축할 정도로 임진강 이남 지역에 대한 영토적인 지배를 공고히 하였다.

신라와 백제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던 고구려가 어느 정도 내분을 수습하고 임진강 이남의 신라에 대하여 공격을 감행한 것은 임진강 유역으로 후퇴한 지 약 90년이 지나서이다.

7년(638)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 칠중성을 침범하니 백성이 놀라 혼란해져 산골로 들어갔다. 왕이 대장군 알천에게 명하여 그들을 안도케 하였다. 11월에 고구려 군사와 칠중성 밖에서 싸워서 이겼다.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삼국사기』권5 신라본기5 선덕왕 7년)

21년(638) 겨울 10월에 신라의 북쪽 변경의 칠중성을 침략하였다. 신라의 장군 알천이 막으므로 칠중성 밖에서 싸웠는데 우리 군사가 졌다.『삼국사기』권20 고구려본기8 영류왕 21년)

이 기록에 의하면 638년 고구려가 침입할 당시에는 이미 칠중성을 비롯하여 임진강 이남 지역에 대한 신라의 방어 시스템이 거의 완비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경 지역에 대한 주민 이주정책을 실시하여 유사시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어 시스템으로 인하여 칠중성에서 벌어진 고구려와의 전투는 신라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이후 30여 년 동안 고구려·백제·신라의 갈등은 더욱 높아지고, 당나라 세력까지 한반도에 개입하면서 이후 40여 년간 삼국은 지루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다.

660년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을 공격하자 고구려는 신라의 배후에 해당하는 칠중성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당시 고구려의 공격에 대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짧게 기록되어 있다.

(660년) 11월 1일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침공하여 군주 필부가 전사하였다.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삼국사기』 열전 필부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필부는 신라의 사랑부 사람인데 아버지는 아찬 존대이다. 태종대 왕이 백제·고구려·말갈이 서로 가까워져 침탈을 함께 꾀하자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인재로서 그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를 구하였는데 필부를 칠중성의 현령으로 삼았다. 이 해는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하기 한 해 전인데 신라는 이미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침공은 나당연합군이 백제 수도를 공격한 3개월 후인 660년 10월에 감행되었다. 고구려군은 군사를 출동시켜 칠중성을 포위하였다. 이때 출동한 고구려군의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칠중성의 규모가 700m 정도이므로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고구려 군사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군이 칠중성을 포위하여 20여 일 정도 지났으나 성 안에서 굳세게 저항하자 고구려군은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철수하려고 할 즈음에 성내에서 반역이 일어났다. 대나마 비삼이 몰래 적에게 사람을 보내어 성내의 식량이 다하고 힘이 다하였으니 만약 공격하면 반드시 항복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고구려 군사가 다시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비삼이 적과 내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필부는 비삼의 머리를 베어 성 밖으로 던지면서 군사들에게 고하였다. “충신과 의로운 병사는 죽어도 굴하지 않는 것

이니 힘써 노력하라. 성의 존망이 이 한 판의 싸움에 달렸다.” 이에 성을 지키던 군사들은 분연히 주먹을 쥐고 병든 사람까지 모두 일어나 다투어 먼저 성에 오르려 하였다. 그러나 병사들이 피로에 지쳐서 쓰러져 죽거나 부상을 당한 자가 절반이 넘었다. 적이 바람을 타고 불을 지르고 갑자기 성을 공격하여 쳐들어오니 필부는 상간·본숙·모지·미제 등과 함께 적을 향하여 활을 쏘았으나 적의 화살이 빗발 같이 날아와서 팔다리와 몸이 찢어지고 잘리어 흐르는 피가 뒤꿈치를 적실 정도였다. 이에 필부 등이 쓰러져 죽으니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슬피 통곡하고 급찬의 관등을 추증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에서 고구려의 칠중성 공격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문맥상으로는 고구려군이 칠중성을 공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고구려군이 칠중성에 계속 주둔했을 가능성보다는 칠중성 함락 후 고구려군은 철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2년 후인 662년 김유신이 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당나라 군대에 군량미를 전달하러 갈 때에 칠중성은 여전히 신라의 수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임술년(문무왕 2, 662) 정월 23일 칠중하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먼저 배에 오르지 않자 유신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이곳에 왔는가? 하고는 스스로 먼저 배에 올라 건너니 여러 장군과 병졸이 따라서 강을 건너 고구려 강역 안에 들어갔다. 고구려인이 큰 길에서 지킬 것을 염려하여 험하고 좁은 길로 행군하여 산양에 이르렀다. (『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662년(문무왕 2) 정월 김유신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에 원정은 당군에 군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레 2,000여 량에 식량을 싣고 평양으로 향했다. 정월 18일에는 풍수촌에 묵고 23일에는 칠중하를 지나 산양에 도착하였으며, 이현이란 곳에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였다. 2월 1일에는 평양에서 3만 6,000여 보 떨어진 장새에 도달하였으며, 6일에는 양오라는 곳에 이르러 당군에게 군량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신라로 돌아올 때에는 추격해온 고구려군에게 호로하에서 공격당

하였다. 김유신 부대는 칠중하로부터 장세현을 거쳐 평양에 갔다가 호로하로 돌아왔음이 분명한데 칠중하와 장세현 사이의 예상 이동로는 칠중성에서 북쪽으로 임진강을 건너 황해북도 토산군·신계군 등의 산악지대를 경유하는 코스였을 것이다.

이 기록내용으로 보면 김유신은 경주를 출발하여 임진강 이남 지역까지는 별다른 무리 없이 이동하였는데 임진강을 건너면서 군사들의 동요가 일어났고, 김유신의 독려로 강을 건너 험한 지역을 택하여 평양까지 군량미를 전달하였다. 그런데 662년 이후 667년 사이 몇 년 동안 칠중성은 고구려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이는 「답설인귀서」에 수록된 다음의 내용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건봉 2년(667)에 이르러 대총관 영국공이 요동을 정벌한다는 말을 듣고 저
는 한성주에 가서 군사를 국경으로 보내 모이게 하였습니다. 신라 군사가
단독으로 쳐들어가서는 안 되겠기에 먼저 정탐을 세 번이나 보내고 배를
계속해서 띄워 대군의 동정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정탐이 돌아와 모두
말하기를 대군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므로 우선 고구
려 칠중성을 쳐서 길을 뚫고 대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을 막 깨뜨리려고 할 때 영공의 사인 강심이 와서 대총관의 처분
을 받들어 신라 군사는 성을 공격할 필요 없이 빨리 평양으로 와 군량을 공
급하고 와서 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행렬이 수곡성에 이르렀을 때 대군이
이미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신라 군사도 역시 곧 빠져나왔습니다.(『삼국사
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이때까지만 해도 당과 신라의 공조체제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자 당초 패하(대동강) 이남 지역을 신라에 주겠다고 한 당은 신라와의 약속을 어기고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각각 웅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두어 직접 지배하려 하였다. 심지어 당은 신라까지도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신라는 이에 대하여 670년(문무왕 10)부터 백제 고지를 신라 영토로 편입시키는 군사작전에 돌입하는 한편, 고구려 부흥운동을 후원하

면서 당과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신라는 당으로부터 한강 유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672년(문무왕 12) 당시 신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인 4,360척에 달하는 주장성(長城)을 구축하고 성내에는 길이 54m, 너비 18m가 넘는 대규모 창고를 구축하여 수만 석에 달하는 군량미와 군수물자를 비축하였다. 당시 신라 주력군의 규모는 3~5만 정도였지만, 당나라의 군사는 20만 명이 동원될 정도였다. 따라서 신라군은 당군과의 전면전보다는 장기간의 농성이 가능한 성곽을 쌓아 장기전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주장성의 축성은 당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라도 국토를 사수하겠다는 신라의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평양성을 함락하고 평양 지역에서부터 남하하기 시작한 당과 신라의 전투에서 예성강 이남 지역으로 후퇴하여 임진강 유역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이루어졌다. 항복하지 않은 고구려군 역시 임진강 유역에서 당나라와 접전을 벌였는데 대표적인 전투가 호로하 전투이다.

계유년(673) 여름 윤5월에 연산도 총관 대장군 이근행이 호로하에서 우리나라 군사들을 깨뜨리고 수천 명을 사로잡으니 나머지 무리들은 모두 신라로 달아났다.

이때 전투가 벌어진 호로하는 적성 건너편 호로그루가 있는 부근의 임진강을 지칭하는데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은 이곳이 평양에서부터 한강 유역으로 가는 최단 간선도로 상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때 고구려군은 호로그루에 배수진을 치고 당군과 전투를 벌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호로그루는 남쪽에서 오는 적을 방어하기는 유리하지만 북쪽으로부터의 적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당나라 군대에 패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의 고구려 병사가 포로가 되고 나머지 병사들은 임진강을 건너 칠중성으로 도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675) 2월에 유인계가 칠중성에서 우리 군사를 깨뜨렸다. 인계의 군사는 돌아가고 조칙으로 이근행을 안동진 무대사로 삼아 경략케 하였다. 당나라 군

사가 거란·말갈 군사와 함께 와서 칠중성을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였는데 소수 유동이 전사하였다.

673년 호로고루를 공취하여 임진강 이북 지역을 장악한 당군은 2년 뒤인 675년 대대적으로 병력을 증원하여 신라의 공격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675년 2월 유인계가 이끄는 당군이 칠중성을 공격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이어서 거란·말갈 군사까지 동원하여 다시 칠중성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자 당군은 이근행으로 하여금 20만 대군을 이끌고 임진강의 상류 쪽으로 이동하여 매초성에 주둔하게 하였다.

당시 이근행의 20만 군이 주둔하였던 매초성의 위치에 대하여 양주 대모산성이라는 견해와 연천 대전리성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시 당군과 신라군의 주전선이 임진강 유역이었고, 임진강 이남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칠중성에 대한 공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군의 칠중성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상태에서 양주 지역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이다. 따라서 대모산성이 매초성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대전리산성 역시 북쪽에서 오는 적을 방어하기 유리한 지점이지 남쪽으로의 진격을 위한 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성이 협소하여 20만 군이 주둔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칠중성에서 막힌 당군이 새로운 공격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곡 쪽으로 우회하여 3번 국도를 따라 남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매초성의 위치는 전곡 부근의 한탄강 이북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곡 주변에는 현재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감싸고 있는 둘레 2km 정도 규모의 전곡리토성이 있는데 이 성이 매초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 당시 매초성에 주둔하고 있던 이근행의 20만 군대는 군량미와 군마의 보급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본국에서는 육로를 통한 긴 보급로 대신 해로를 통한 군수물자 보급에 나서게 되었다. 당시 보급 선단을 이끄는 수장은 설인귀였으며 길잡이로는 신라인 풍훈을 이용하였다.

(675) 가을 9월 설인귀가 숙위학생 풍훈의 아버지 김진주가 본국에서 처형당한 것을 이용하여 풍훈을 이끌어 길잡이로 삼아 천성泉城을 쳐들어왔다.

우리의 장군 문훈 등이 맞아 싸워 이겨서 1천 4백 명을 목베고 병선 40척을 빼앗았으며, 설인귀가 포위를 풀고 도망함에 전마 1천 필을 얻었다. 29일에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매초성에 주둔하였는데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쫓고 말 3만 380필을 얻었으며 그 밖의 병기도 이만큼 되었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당나라의 수도에서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이나 유학생들에 의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의 동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라군은 설인귀의 군대를 천성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여 궤멸시키는 전과를 거두게 되었다. 천성은 백수성이라고도 하는데 천성의 위치는 지금의 오두산성으로 추정된다. 통일동산 건설과 관련하여 오두산성에 대한 부분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통일신라기의 유물이며 그 중에는 천황자 명 기와가 여러 점 출토되어 오두산성이 천성이었음을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천성 전투에서 승리한 신라군은 곧바로 매초성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수만 명의 신라군의 공격 앞에 20만이나 되는 이근행의 당군은 변변한 저항도 못하고 3만 필의 말과 수많은 병장기를 버려두고 패주하였다. 이 매초성 전투에는 석문

전투에서 비겁하게 도망하여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김유신의 아들 원술랑도 참여하여 전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매초성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나당전쟁은 사실상 신라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신라는 패강 이남 지역의 땅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라는 임진강과 예성강 사이의 지역만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켰을 뿐, 그 이북 지역으로는 더 이상 진출하지 않았다. 당시 신라로서는 새로 영토로 편입된 백제 고지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임진강 이북 지역에 군현이 설치되는 것은 이보다 늦어져서 694년(효소왕 3)에야 비로소 송악(현 개성 일대)과 우봉(현 황해북도 금천군 현내리 일대)에

오두산성에서 출토된 '泉' 자 명 기와



성을 쌓아 예성강까지의 군현적 지배가 이루어졌으며, 713년(성덕왕 12)에는 개성에 성을 쌓아 임진강과 예성강 하류에 대한 지배를 더욱 강화하였다.

신라의 서북쪽 영역이 예성강 유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경방어의 핵심적인 중심지였던 칠중성 지역은 안정적으로 확보된 신라 영토에 속하게 되면서 중성현의 치소로 자리 잡게 되었고, 내소군의 속현에 포함된 것은 이러한 상대적인 중요성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칠중성이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이유

임진강 중류의 남안에 위치한 적성 지역은 고대 이래 남과 북의 세력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요충지였다. 특히 고대에는 삼국간의 통일전쟁을 전후하여 이 지역에서 전투가 빈번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성곽의 분포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칠중성은 이 지역 전체의 방어거점으로서 대단히 중요시되었다. 칠중성은 한강 유역에서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인 여건상 임진강 이남 지역을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성은 진산인 감악산에서 파평산으로 이어지는 북동-남서 방향의 산지가 400~600m 고도를 보이며 우뚝 솟아 이 지역의 배후산지를 형성하면서 북쪽의 임진강 본류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칠중성은 이 배후산지에서 임진강 방향으로 뻗고 있는 지맥에 구축되어 임진강 일대를 한눈에 조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점에 해당된다. 그뿐만 아니라 칠중성 북쪽 방향의 임진강 하도에는 가여울·호로탄·학여울 등의 여울이 형성되어 있어 대규모 병력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기에 칠중성을 거점으로 하는 적성 지역은 일찍이 고대부터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곳으로 부각되어 왔다.

특히 임진강이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 역할을 하였던 6세기 중엽부터 통일전쟁이 끝나는 7세기 후반까지 130여 년간 칠중성은 신라가 고구려나 당으로부터 임진강 이남 지역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군이 한반도의 지배를 위하여 남하할 당시 몇 차례에 걸친 칠중성 공격이 성공하였다면, 당군은 손쉽게 양주 지역이나 한강 유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칠중성에서의 승리는 이후 천성 전투와 매초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칠중성은 한반도를 외세로부터 지켜낼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유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려사가 전하는 파주

박경안_중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파주목의 형성과 경기

당초 파주坡州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에는 없었다. 파주는 1459년(세조 5) 10월 2일 원평도호부原平都護府가 정희왕후 윤씨의 내향內鄉이라는 이유로 목牧으로 승격되면서 조선시대에 나타난 이름이다. 『조선왕조실록』 및 『동국여지승람』 기록에 의하면, 파주는 파평坡平·서원瑞原 두 현縣의 합쳐진 이름이다. 오늘날의 파주는 대체로 본래의 파주와 교하交河, 적성積城 그리고 휴전선 이남의 옛 장단군長湍郡 관내로 구성된다. 기록을 참조하여 파주목의 형성과정 및 확대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1], [표2]와 같다.

파주坡州는 처음에 파주波州라고 했다. 물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다. 이를테면 문산汶山, 장단長湍이 그렇고 이웃 연천漣川이 그렇다. 몇 년 전 문산 지방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연이 아니었을 듯싶다. 당시의 뱃길은 오늘날 고속도로에 해당할 정도로 물류운송의 축을 이루었다. 이를테면 태조 왕건王建도 뱃길을 이용하여 바다와 강을 넘나들며 장사를 하면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세력이 될 수 있었다. 그가 활약하던 지역 가운

[표1] 파주목의 형성과정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북부	· 파해평사波害平史(액봉額蓬, 액봉額蓬)현縣	· 파평현坡平縣(내소군來蘇郡 영현領縣, 경덕왕景德王)	· 파평현坡平縣(현종 9년 장단군長湍郡 예속, 문종 16년 개성부開城府 예속, 예종조睿宗朝 감무監務 설치) · 영평鈴平이라고도 함	· 태조 2년 서원현瑞原縣 군郡으로 승격 · 서원군瑞原郡과 파평현坡平縣을 합하여 원평군原平郡(태조 7년)
남부	· 슬미홀述彌忽(수니홀首泥忽)현縣	· 봉성현峰城縣(교하현交河縣 영현領縣, 경덕왕景德王)	· 봉성현峰城縣(현종 9년 양주楊州 예속, 명종明宗 2년 감무監務 설치) · 서원현瑞原縣(우왕 13년)으로	· 원평도호부原平都護府로 승격(태종 15년) · 파주목坡州牧(세조 5년)

데 하나가 임진강이다.

장단나루[長湍渡]가 있다.(강 양쪽 기슭에 푸른 바위가 벽처럼 솟아 있어서 수십리 밖에서 바라보면 마치 그림과 같다. 세간에 전하기를 태조가 이곳에 와서 놓고 간 일이 있다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지금까지도 당시의 노래 곡조를 전한다.)

나중의 일이지만, 우왕[禔王]이 장단에서 전함을 사열하고자 했던 곳도 바로 임진강으로 당시엔 남강[南江]이라고도 하였다. 주변 경관도 수려하여 뱃놀이를 하기에 적당하였다. 무신들에 의해 수모를 당한 의종[毅宗]이 신료를 거느리고 유흥의 장소로 이용하였던 곳도 바로 여기였다. 배에는 여악[女樂]과 잡희[雜戲]를 싣고 다녔으며 수희[水戲]라는 것도 있었다. 이와 같은 유희의 뒤에는 백성들의 희생이 수반되었을 것이다.

(의종 21년) 5월 초하루 무술일에 왕이 임진현에 가서 강변에 있는 중의 집에 유숙하였다. 이튿날 재추[宰樞]들인 김영윤[金永胤]·서공[徐恭]·이공승[李公承]

[표2] 확대된 영역(교하, 적성 및 장단)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이후
교하 交河	· 천정구현泉井口縣(굴화군屈火郡, 어을매곶於乙買串)	· 교하군交河郡	· 교하군交河郡 (양주楊州 예속. 선성宣城, 유오도성有鳥島城, 낙하도洛河渡 내속來屬, 현종 9년)	· 교하군交河郡 (태조 3년 감무監務설치, 심악深岳과 석천石淺 내속來屬. 태조 14년 석천은 원평부原平府로, 심악은 고양현高陽縣으로 보냄) · 교하현交河縣(석천, 심악을 복구, 태조 18년) · 파주坡州에 편입(숙종 13년)
적성 積城	· 칠중성七重城	· 중성重城(내소군령현來蘇郡領縣, 경덕왕景德王)	· 적성현積城縣 (현종 9년 장단현長湍縣 예속. 문종 16년 개성부開城府 예속. 예종 원년 감무監務 설치)	· 적성군積城郡(고종 32년) · 적성면積城面(1945년 연천군漣川郡에서, 1973년 파주군坡州郡으로)
장단 長湍	· 장천성長淺城(아아耶耶, 아야夜牙)	· 장단長湍(우봉군牛峰郡 영현領縣, 경덕왕景德王)	· 단주湍州로 승격(목종 4년) · 장단현長湍縣(현종 9년 상서도성尙書都省 관할. 문종 16년 개성부開城府 직예直隸)	· 장단군長湍郡(임강현臨江縣, 임진현臨津縣 병합, 세조 22년) · 남북분단으로 4개면(장단, 군내, 진서, 진동)이 파주에 속함, 1979)

升·최온崔溫 등과 승선들인 이담·허홍재許洪材·김돈증金敦中 등을 데리고 남강南江 중류에 배를 띄우고 오르내리면서 온종일 즐겁게 놀았다. 계축일에 왕이 장단현 응덕정應德亭에 가서 뱃놀이를 하였는데 배 안에 비단 장막을 치고 여악女樂과 잡희雜戲를 실어 강 중류에서 놀았다. 이때에 배 19척을 모두 비단으로 장식하였다. (중략) 거기서 2일간 체류하면서 수희水戲를 구경하였다.

당시 임진강 주변의 경관이 좋은 곳에는 정자라든가 귀족들의 별장도 늘어서 있었다. 임진현은 한때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수도 남경의 적지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임진강 유역은 물과의 인연이 깊은 곳으로 일찍부터 개경의 배후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였다.

『고려사』 기록을 보면, 1018년(현종 9)에 개성開城 현령縣令을 두어 정주貞州·덕수德水·강음江陰 등 3개 현을 관할하고 또한 장단長湍 현령이 송림松林·임진臨津·토산兎山·임강臨江·적성積城·파평坡平·마전麻田 등 7개 현을 관할케 하면서 모두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켰는바 이것을 경기京畿라고 하였으며, 1062년(문종 16)에는 지개성부사知開城府事를 복구하여 상서도성 관하 11개 현이 모두 이에 소속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1390년(공양왕 2)에는 경기를 좌·우로 나누어 장단·임강·토산·임진·송림·마전·적성·파평 등 현을 좌도로, 개성·강음·해풍海豐·덕수·우봉 등 현과 군을 우도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성·파평 등 북파주 지방은 오랫동안 황도 개경의 수도권적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파주의 사회적 양상

고려왕조는 집권화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호족연합정권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모든 권력은 개경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수립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주군현州郡縣 제도가 그것이었다. 정부는 수령을 파견하여 이들 지역을 관할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운망漕運網이요, 또 다른 하나가 도로망이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1480년(성종 11)에 수정기輸京價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중앙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뱃길의 위험도에 따라 운송료가 정해져 있었다. 조운은 수운과 연결되어 세곡稅穀 및 공물의 수송 따위를 담당하였다. 한편 도로망은 중앙으로부터의 정령의 전달, 군사적 연락, 물자의 수송 등을 담당하여 전국적으로 22역도驛道가 있었는데, 그 중 청교도靑郊道가 파주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청교도靑郊道는 청교靑郊[개성開城], 통파通波[임진臨津], 마산馬山[봉성峯城], 벽지碧池[고봉高峯], 영서迎曙[남경南京], 평리平理[덕수德水], 상림橡林·단조丹叢[적성積城], 청파淸波[남경南京], 노원蘆原[남경南京], 행주역幸州驛·종승從繩[수안守安], 금륜金輪[수주樹州], 중림重林[인주仁州], 녹양綠楊[전주見州]의 15개 역을 관장한다.

청교도는 개성을 출발하여 임진, 봉성, 적성을 비롯하여 남경(지금의 서울), 수주[富平], 인주[仁川], 견주[楊州]로 이어지는 간선이었다. 이들 지역은 임진강과 한강을 통과하는 만큼 해당 역은 업무가 적지 않았다. 1106년(예종 원년) 당시 파주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곳에서 유망流亡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역시 과중한 역부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장단현의 속현屬縣이라는 군현제적 불리함은 또 다른 배경이었다. 감무관을 두어 유망을 줄이고자 한다는 아래의 기사가 이를 말해준다.

(예종 원년 여름 4월) 경인일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중략) 지금 우봉牛峯, 토산兔山, 적성積城, 파평坡平, 사천沙川, 삭녕朔寧, 안협安峽, 승령僧嶺, 동음洞陰, 안주安州, 영강永康, 가화嘉禾, 청송靑松, 인의仁義, 금성金城, 제주堤州, 보령保寧, 여미餘尾, 당진唐津, 정안定安, 만항萬項, 부윤富潤, 양구楊口, 남천狼川 등 군현 사람들이 또 유리 분산하는 상태에 있으니 유주儒州 등지의 전례에 준하여 감무관監務官을 두어 그들을 불러들이고 위로 하도록 하라.”

이처럼 개경에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은 주민들의 삶에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국가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제위보를 가동하여 죽을 쑤어 먹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주민들의 삶이 어떠한지 하는 점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다.

(문종 18년) 4월에 또 왕이 명령하기를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임진

[현] 보통원臨津普通院에다 죽물과 소채를 준비해 두고 여행자들에게 베풀어 주도록 하라"고 하였다.

숙종 6년 4월에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백성들로서 가난하여 제 힘으로 살아 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제위보濟危竇로 하여금 보리가 익을 때까지를 기한으로 구제하도록 할 것이며 또 임진현의 보통원에다 먹을 것을 갖추어 두고 앞으로 3개월간 여행자들에게 베풀어 주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파주 지역은 국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그 영향을 받고 있었다. 각종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개경과 가까운 파주 지역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고 있었다. 직접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문종 10년) 2월 갑오일에 해당 기관에서 아뢰기를 “번인蕃人들에게 납치되어 갔던 염가칭廉可稱은 군기승 염위廉位의 아들이요, 삼한공신三韓功臣 사도司徒 염형명廉刑明의 후손으로서 경술 연간에 환위공자군環衛公子軍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거란군이 침입하여 서울이 소란하게 되자 부모를 모시고 자기 고향인 봉성현峯城縣(경기도 파주)으로 갔습니다. 도중에 적을 만나서 그들에게 납치되어 갔다가 청녕淸寧 원년 정월에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도망하여 왔사오니 그의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영업전永業田과 가택을 돌려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염가칭은 본래 파주 사람이었다. 공신 자손으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거란족이 쳐들어오는 난리통 속에서 뜻밖에 번인[女眞族]들로부터 납치당하는 불행을 당하였던 것이다. 1010년(경술년)에서 1055년(청녕 원년)까지의 무려 45년의 세월을 번인들에게 잡혀 있었던 것이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으며 끝내 아들 하나만 데리고 도망쳐 나왔던 것이다.

파주의 경제적 형편

『고려사』 권78 식화지 서序에 의하면 삼국 말기에는 경계經界가 정확하지 못하였고 부림賦斂도 법도가 없었으므로 태조는 맨 먼저 토지제도를 개정하고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한도를 정하였다고 하였다. 토지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양전量田이었다. 그러나 토지의 상태가 늘 같은 것이 아니어서 변화된 조건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정종 7년 정월에 호부에서 보고하기를 “상주尙州 관내管内의 증모中牟縣과 홍주洪州 관내의 세성군, 장단長湍縣 관내의 임진臨津, 임강臨江 등 현에 있는 민전은 그 면적의 다소와 기름진 정도의 차이가 고르지 못하니(민전다과 民田多寡 高絀不均), 청컨대 사신을 보내 땅을 재고 백성들의 식량과 역役을 평균하게 하도록 합시다”라고 하였으므로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장단현 관내 임진현의 경우이다. 임진현은 지금의 진동·진서·군내·장단의 4개 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민전다과 고척불균’이라고 한 것은 면적과 품등급等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이며 당시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토지정책의 방향이 균부均賦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균의 원인에 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 그러나 수·한해로 인한 토지의 유실, 퇴적 혹은 황폐 등을 들 수가 있겠다. 이럴 경우에 양전사를 파견하여 양전을 함으로써 불균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양전의 대상은 주로 민전民田으로 그 결과는 부세賦稅의 징수 혹은 수조권收租權의 징수로 연결된다. 관인층에게는 수조권의 일부가 부여되었으며 이 외에도 녹봉祿俸 그리고 시지柴地가 지급되었다. 시지는 연료채취 지역인데 사실상 개간을 통해 수조지收租地로 이용할 수가 있었다. 1076년(문종 30)에 경정된 양반전시과 중에서 시지의 범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시지柴地

1일정一日程: 개성開城 · 정주貞州 · 백주白州 · 염주鹽州 · 행주幸州 · 강음江陰 · 면산免山 · 임강臨江 · 신은新恩 · 마전麻田 · 적성積城 · 파평坡平 · 창화昌化 · 견주見州 · 사천沙川 · 봉성峯城 · 임진臨津 · 장단長湍 · 교하交河 · 동성童城 · 고봉高峯 · 송림松林 · 통진通津 · 덕수德水;

2일정二日程: 안주安州 · 동주洞州 · 봉주鳳州 · 수주樹州 · 포주抱州 · 양주楊州 · 동주東州 · 수안遂安 · 토산土山 · 당성唐城 · 인주仁州 · 김포金浦(하락)

여기서 파주 지역인 적성 · 파평 · 봉성 · 임진 · 교하 등은 개성과 마찬가지로 일일정一日程 즉 하루거리에 속한 것을 보이고 있다. 좀 더 먼 지역은 이틀거리로 잡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수레에 나무를 싣고 개경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혹 가까운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개경 주변 지역은 오늘날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나무를 베는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통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이른바 풍수 사상이었다. 여하튼 당시 겨울철 땔감을 마련하고 갈무리하는 일은 하나의 큰 일이었을 것으로 노비들의 주요 일과의 하나였을 것이다.

집권화정책의 결과 권력이 집중되게 마련이었다. 개경에 거주하는 귀족관료들은 녹봉 이외에 수조권을 받아 경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으나 이는 전부가 아니었다. 그들의 경제적 지배력의 밑바탕에는 민전이 있었다. 경기 지역은 이들 민전이 포진해 있었고 때로는 농장의 형태로 관리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의종 때에 왕이 귀족들과 노닐던 이담의 별장이라든가 여말 이색의 별장이 있었던 것도 바로 장단이었다. 그러다보니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염신약의 자는 공가公可이며 봉성군峯城郡 사람이다. (중략) 그의 토지[田]가 봉성峯城에 있었는데 정중부가 그 토지를 강탈하였다가 얼마 후에 돌려주었다. 염신약이 종을 보내 수확을 하게 하였더니 정중부 집 종[家奴]이 도중에 노리고 있다가 강탈하려 하므로 서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정중부가

염신약의 종을 체포하여 가구소街衙所에 투옥 살해하고 증방重房을 시켜 염신약을 탄핵하게 하니 왕도 마지못해 그를 파면시켰다. 그러나 미구에 염신약을 이부상서吏部尙書로 임명하고 후에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삼았다.

정중부가 염신약의 토지를 강탈하려다 여의치 못하자 수확물을 가로채려 했지만 오히려 염신약이 피죄인으로 몰린 사건이다. 각각 노비는 주인을 대신하여 일을 벌이다 결국 피살되는 운명이 되기도 하였다. 무인정권 하에서의 일이었다. 위에서의 수확물은 아마도 쌀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당시의 농업생산은 논 농사보다는 밭작물이 주가 되고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삼麻이었다. 흔히 옷감의 원료가 되는 삼은 삼베[布]라 하여 당시 섬유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삼베가 단순한 옷감소재일 뿐만 아니라 현물화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언공韓彦恭은 단주端州 사람이니 부친 한총례韓聰禮는 광록소경光祿少卿이었다. 한언공은 성품이 명민하고 학문을 즐겼다. (중략) 목종이 즉위하자 내사시랑, 평장사로 임명하고 4년에 문하시중으로 임명하였다. 왕이 주, 군들을 순행하다가 장단현에 이르렀을 때 한언공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그대의 고향인데 그대의 공로를 생각하여 단주로 승격시키겠다”고 하였다. 당시는 전폐錢幣만을 유통시켰으며 추포黼布의 유통을 금지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자못 불편하였다. 그래서 한언공이 상소하여 그 폐단을 논술하였더니 왕은 그 의견을 채택하였다. 후에 누차 승진되어 특히 개국후로 봉하고 식읍1천 토와 감수국사 벼슬을 더 주고 그의 부친 총례에게 내사령 벼슬을 추증하였다.

장단현이 단주로 승격한 것은 바로 한언공의 공로라 하겠다. 그런데 이 무렵에는 대외결제의 수단으로서 주로 은이 쓰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서도 주로 금속화폐가 두루 쓰이고 있었다. 따라서 금속화폐를 주조하여 널리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언공은 특이하게도 물품화폐로서의 포의 사용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리고 목종도 이를 추종한 결과 다시금 추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어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듯하나 그 나름의 이유와 배경을 갖고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삼을 재배하고 있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부녀자들은 베틀에 앉아서 삼베를 짜서 옷감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다른 물건과 바꾸기도 하였다. 농업생산을 위주로 삼고 있는 당시로서는 현물화폐로서의 추포의 기능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파주 지역의 신앙

우리는 흔히 유불선儒佛仙이라고는 하지만, 유교는 정치사상으로서 기능하였고 고려인들의 내면세계를 지배한 것은 역시 불교 내지는 민간신앙이었다. 그 결과 고려인들은 부처님 이외에도 위로는 천령으로부터 산천신과 마을수호신 그리고 집 안의 잡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신을 믿고 의지하였다. 고려인들의 믿음은 전반적으로 기복적 성격이 강하며 더불어 음양설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적성에 있는 감악산에 관한 이야기이다.

적성현積城縣에는 감악紺嶽이 있는데, [신라 시기 이래 소사小祀로 되어 있다. 산마루에 사당이 있는데 매년 봄과 가을에 왕이 향과 축문을 보내 제사를 지낸다. 1011년(현종 2) 거란 침략군이 장단악長端嶽 사당까지 이르니 군기와 군마들이 있는 듯이 보여서 거란병이 겁을 먹고 감히 더 침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왕이 이 사당을 복구하여 귀신의 보호에 보답케 하였다고 한다. 새간에서 전하기를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 장수 설인귀薛仁貴를 모셔서

산신으로 삼았다고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감악산은 신라의 소사에 분류되어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제사의식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봄 가을에 왕이 향과 축문을 보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감악산에 있는 산신이 효험을 발휘한 것은 거란군이 쳐들어왔을 때였다. 당시 산신이 마치 고려군의 군기와 군마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거란군으로 하여금 기세를 꺾게 만들어 결국 고려는 이들을 물리쳐 나라를 보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어떤 자연현상이 작용하였는지 모르지만 거란군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든 것은 사실이고 고려군 측에서는 이를 감악산신이 작용한 것으로 믿어버린 것이다. 이는 평소에 그러한 신통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고려인들의 심성에 바탕을 둔 결과였다. 감악산에 대한 평가는 이미 풍수적 관점에서도 이루어져 있었다. 『고려사』 권122, 김위제전金謂碑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또 신지비사神誌秘詞에 이르기를 (중략) 이것은 저울을 가지고 세 곳의 저울에 비유한 것입니다. 극기는 머리요 추는 꼬리이며 대는 저울 끈을 잡는 곳입니다. 즉 송악산을 부소라고 하여 대에 비유하였으며 서경을 백아강이라고 하여 저울 머리에 비유하고 삼각산의 남쪽을 오덕구라고 하여 추에 비유한 것입니다. 오덕五德이란 중앙에 면악面嶽이 있어서 원형으로 되었으니 토덕土德을 상징한 것이요, 북에 감악紺嶽이 있어서 곡형曲形으로 되었으니 수덕水德을 상징한 것이요, (중략) 이것도 도선의 삼경三京의 설과 합치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중경과 서경은 있으나 남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각산 남쪽 목맥산 북쪽 평지에 도성都城을 건설하고 때를 맞추어 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위제는 남경을 설치하여 지덕으로서 나라를 보존해야 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여기서 남경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오덕구五德丘의 하나로서의 감악산을 들고 있다. 개경의 송악산이 저울대라면, 서경은 저울머리요 삼각산 남쪽은 오

덕구로서 저울의 추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고려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은 회로애락의 감정을 지닌 인격신이자 지역수호신으로서의 측면을 갖기도 하였다. 감악산신이 구국의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출전을 앞두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제를 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하지만 때로 높은 직함을 주어 신의 마음을 다잡으려는 경우도 있었다.

(충렬왕 13년 5월) 임인일에 왕이 내안乃顔 대왕의 반란을 일으킨 소식을 듣고 장군 유비를 원나라에 보내어 “고려에서도 군대를 출정하여 역적 토벌을 원조하겠다”고 청하였다. (중략) 기묘일에 감악산緄嶽山 산신山神의 들께 아들을 봉하여 도만호都萬戶로 임명하였는바 이것은 원정을 도와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하략)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유교적 합리성을 주장하는 식자층 사이에서는 점차 고려의 전통적 풍속에 대한 회의적 생각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들은 감악산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충선왕) 3년 4월에 감악산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때에 귀신을 숭상하여 재상으로부터 모든 관리와 평민들이 감악산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장단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는 자도 있었으므로 어사대에서 글을 올려 이를 금지한 것이다.

이 무렵 주자성리학이 점차 고려 사회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며 그 결과 고려인들의 풍속을 미신의 차원에서 다루려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전통적 풍속에 젖어 있어서 이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여말선초 개혁의 과정이 필요했던 소이이기도 하다.

파주의 고려 인물

태조 왕건에게 후백제와의 전쟁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었다. 휘하의 여러 호족세력들을 다독이며, 때로는 중폐비사重幣卑辭로써, 다소의 잘못이 있어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게 되자 내부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통치의 기준을 호족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둔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934년(태조 17) 예산진 조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름 5월 을사일에 왕이 예산진禮山鎭에 가서 조서를 내렸다. “(중략) 너희들 공경 장상公卿將相으로서 나라의 녹봉을 먹는 자들은 마땅히 백성들을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나의 뜻을 충분히 체득하고 자기의 녹읍祿邑 백성들을 사랑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만일 국가 사업에 뜻이 충실하고 시종 일관 허물이 없다면 살아서 영화와 녹봉을 누릴 것이요, 죽어서는 명문 대가로 불리고 자손에게까지 국가에서 그들을 우대하여 표창과 상을 줄 것이다. 이것은 다만 현재뿐 아니라 천추 만대를 내려가면서 좋은 모범으로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잘 따라주면 누대에 걸쳐 복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지켜졌다. 호족세력은 중앙귀족으로 편입되었고, 이른바 ‘누대공신 재상지종累代功臣宰相之宗’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파평 윤씨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제부터는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가문의 딸과 혼인할 것이며 재상들의 자손은 종실의 딸들과 결혼할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만일 집안이 한미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다. 신라新羅 왕손王孫 김훈술金璆 일가一家는 역시 순경태후順敬太后的 숙부 백부되는 가문이다. 언양 김

씨彦陽金氏 일종一宗과 정안定安 임태후任太后的 일종一宗 그리고 경원慶源
 이태후李太后, 안산安山 김태후金太后, 철원 최씨鐵原崔氏, 해주 최씨海州崔
 氏, 공암 허씨孔岩許氏, 평강 채씨平康蔡氏, 청주 이씨淸州李氏, 당성 홍씨唐
 城洪氏, 황려 민씨黃驪閔氏, 횡천 조씨橫川趙氏, 파평 윤씨坡平尹氏, 평양 조
 씨平壤趙氏 등은 모두 누대공신, 재상의 친척으로서 대대로 훈인할 만하다.

이들 재상지종 중에 파평 윤씨는 경주 김씨 · 정안 임씨 · 경원 이씨 · 안산 김
 씨 · 철원 최씨 · 해주 최씨 · 공암 허씨 · 청주 이씨와 더불어 고려 전기 이래의
 문벌귀족가문에 속하였다. 파평 윤씨 가문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바로 윤관은다.

윤관의 자는 동현同玄으로 그의 고조 신달莘達은 태조(왕건)를 보좌하고 삼한
 공신 칭호를 받았으며 아버지 집형執衡은 검교소부소감檢校少府少監 벼슬을 지냈
 다. 윤관은 문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습유拾遺 · 보궐補闕을 거쳐 1104년 추밀
 원사로서 동북면행영병마도통사東北面行營兵馬都統使가 되어 여진을 정벌하다가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 뒤 별무반別武班을 창설하여 군대를 양성, 9성을 쌓아 침
 범하는 여진을 평정하고 이듬해 봄에 개선하였다. 정세가 바뀌자 여진정벌의 실
 패로 모함을 받아 벼슬을 빼앗기고 공신평마저 삭탈되었으나, 예종의 비호로
 1110년 수태보 · 문하시중 · 병부판사 · 상주국 · 감수국사가 되었다.

한편 파평 윤씨 이외에도 파주 사람으로는 앞서 소개한 염신약 · 한언공 등이
 있다.



혜음원과 파주

서영일_한백문화재연구원 부원장

원院은 여행자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었다. 비슷한 시설로 역驛이 있었다. 역은 국가에서 공무로 여행하는 관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민간인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반면에 원은 국가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지만 민간에서도 설치하여 상인이나 민간 여행자들도 사용할 수 있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신라 때에 이미 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에 처음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대체로 삼국 시대 지방제도가 정비되고 사람과 물자의 유통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국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후 원이 크게 늘어났던 것은 신라 말에서 고려 초 사이였다.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면서 국가의 공식적인 역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중요 사찰에 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설치된 원은 사찰 이름을 따서 지어졌기 때문에 원과 사찰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유명한 사찰에는 부속시설로 원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 중기 이후에는 국가나 왕실에서도 원을 창건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개경 주변의 원은 오늘날의 호텔과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여행객의 숙박은 물론 국왕이나 귀족들이 연회를 펼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혜음원은 왕실의 주도로 현재의 파주시 용미리에 설치된 국립호텔이었다. 개경과 남경 사이에 교통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설치되었다. 특히 국왕의 남경 행차가 빈번해지자 행궁을 설치하여 일종의 국립호텔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혜음원과 관련된 기록과 발굴 조사 결과 출토된 유물과 유구를 통하여 고려시대 혜음원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혜음원지 주변 지형과 교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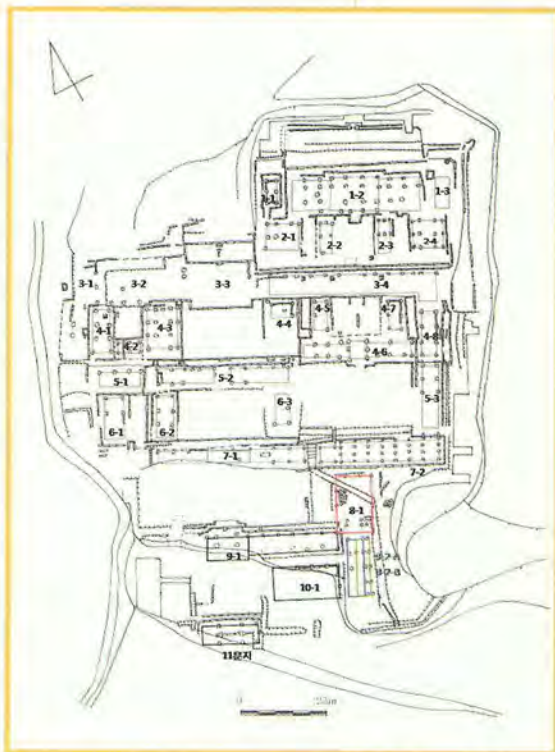
파주는 한강과 임진강 유역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교통의 요지였다. 지형 여건상 파주의 동쪽과 남쪽은 고갯길이 발달하였고 북쪽은 도진이 발달하였다. 임진강의 하구는 한강 하구 및 서해 바다와 연결되면서 매우 넓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며 뻗어 넓게 발달하여 도강에 불리하다. 선착장이나 항구가 들어서기에도 좋은 환경이 아니다. 하지만 문산천과 합류하는 문산 부근에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급격히 강폭이 좁아지게 되며 강변의 뻗춤도 사라지게 된다. 그 중 강 양안에 V자형의 통로가 형성되어 강으로 접근하기가 쉽고 배를 정박하기에 유리한 조건의 지형이 등장한다. 이런 지역이 나루로 활용된다. 그 중 가장 하류 쪽에 있는 것이 임진나루이다. 임진나루는 임진강이 서쪽으로 흐르다 임진나루 주변의 구릉에 막혀서 강이 북쪽으로 곡류하는 지점이다. 북쪽 장단 방향은 충적지가 발달하고 사구가 형성되어 있다. 임진나루 주변은 강에 의하여 침식된 단애를 이루지만 나루가 있는 곳은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하천에 의하여 침식되어 V자형의 통로가 형성되어 강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서울 방면에서 임진나루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혜음령이다. 혜음령은 창릉천과 공릉천에 의하여 형성된 계곡부를 연결하는 고갯길이다. 현재는 고양-광탄 간 도로가 통과하고 주변이 개발되었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는 인구밀도가 낮고 고갯길 양 방향에 형성된 계곡을 구불구불 지나서 통과하기 때문

에 교통이 불편한 오지였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고갯길을 중심으로 양쪽에 여행자들이 묵어 갈 수 있는 원을 세웠다. 해음령 북쪽에 분수원 · 광탄원 · 해음원 등이나 남쪽의 벽제관 등이 북쪽과 남쪽으로 여행하는 관리 · 사신행렬 · 상인 · 일반 여행자들의 유숙지가 되었다. 특히 벽제관은 서울로 들어가는 출입구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임진나루와 해음령을 연결하는 길은 조선시대까지 서울에서 개성으로 가는 대표적인 길이었다. 이 길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중기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 원래 고려 중기까지 개경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은 개경에서 적성을 지나 양주를 거쳐 현재 서울 광나루를 지나 광주로 가는 길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길은 고대부터 한반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다. 삼국시대 산성이나 보루 유적들도 이 길을 따라서 밀집되어 있다.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적성 지역이다. 적성 지역은 강폭이 좁고 여울이 발달하였으며 강 양안에 통로가 형성되어 배가 없이도 도강에 유리한 곳이었다. 적성 남쪽에 있는 감악산을 두고 동 · 서의 고갯길을 통과하면 양주 분지를 지나 서울까지 평탄한 지형이 연속되어 통행의 불편이 없었다. 삼국시대부터 백제의 북방교통로로 활용되었고 고구려의 남진로로도 사용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도 황해도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교통로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고려 중기에 남경이 건설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개경에서 양주를 거치지 않고 파주를 거쳐서 남경(서울)으로 통하는 지름길이 주목되었다. 사람은 가능하다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도 빠른 길을 사용하려는 습성이 강하다. 지금의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고려의 남경으로 가는 여행자들은 양주로 우회하는 것보다 약간의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더 빠른 길인 해음령을 통과하려고 하였다. 다만 이 길은 적성로에 비하여 교통의 장애가 되는 고갯길과 산지가



해음원지 현황도

많았다. 「혜음사신창기」의 기록에 의하면 노변의 숙박시설도 없고 민가도 드물어 통행이 불편하였다. 남경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경과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혜음령 길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필요한 사업이 노변에 여행자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고 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혜음원의 창건은 바로 고려 왕실의 이 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된다.

혜음원의 창건 배경

혜음원惠陰院(寺)*에 관련된 문헌자료로는 『동문선東文選』 권64 기記 「혜음사신창기惠陰寺新創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파주 고적 고혜음사古惠陰寺 및 혜음원조惠陰院條, 『여지도서輿地圖書』 파주목 사찰 고혜음사조古惠陰寺條 등이 있다. 「혜음사신창기」는 혜음원의 창건 배경 및 그 과정과 이에 공헌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대체로 『동문선』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내용을 간추려 축약하였고 약간의 차이도 있다. 『여지도서』에는 “옛 터만 있다”고 하여 간단히 폐사된 상태만 기록되어 있다. 결국 혜음원에 대한 여러 기록 중 『동문선』에 실려 있는 「혜음사신창기」가 가장 자세한 기록이다. 혜음원의 창건 배경과 관련하여 「혜음사신창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가) 봉성현에서 남쪽으로 20리쯤 되는 곳에 조그마한 절이 있었는데, 허물어진 지 벌써 오래였으나 지방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을 석사동이라 불렀다. 동남방에 있는 모든 고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위에서 내려가는 사람이 모두들 이 길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깨가 서로 스치고, 말은 굽이 서로 닿아서 항상 복잡하고 인적이 끊어질 사이가

*『동문선』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혜음사惠陰寺, 혜음원惠陰院 등으로 기록되었지만,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명문기와에는 혜음원惠陰院과 혜음사惠陰寺라고 표기되어 있다. 문헌에서는 모두 음陰으로 표현하였으나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기와에서는 막새기와의 경우 혜음원惠陰院으로, 평기와는 혜음사惠陰寺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혜음원(사)에서 생겨난 지명으로 보이는 혜음령은 '惠陰嶺'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단 문헌을 좇아서 '陰'을 사용한다. 또한 혜음사의 축조 목적이 사찰보다는 원院을 만드는 데 있었고 혜음사惠陰寺라고 할 경우 원院으로서의 기능이 잘 표현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찰刹과 숙박시설로서의 원院이 결합된 사원寺院이란 의미로서 혜음원惠陰院이란 용어를 사용하겠다.

없었는데 산, 언덕이 깊숙하고 멀며, 초목이 무성하게 얹혀 있어서 호랑이가 때로 몰려다니며, 안심하고 숨어 있을 곳으로 생각하여, 몰래 숨어서 옆으로 엿보고 있다가 때때로 나타나서 사람을 해친다. 이뿐 아니라 간혹 불한당들이 이 지역이 으스스하고 잠복하기가 쉬우며 다니는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여기에 와서 은신하면서 그들의 흉행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올라오는 사람이나 내려가는 사람이 주저하고 감히 전진하지 못하며, 반드시 서로 경계하여 많은 동행자가 생기고 무기를 휴대하여야만 지나갈 수 있는데도, 살해를 당하는 자가 1년이면 수백 명에 달하게 되었다.

(나) 선왕인 예종이 왕위에 오르신 지 15년인 기해년(1119) 가을 8월에 측근의 신하인 소천이 임금의 사명을 받들고 남쪽 지방에 갔다가 돌아왔다. 임금께서 “이번 길에 민간의 고통스런 상황을 들은 것이 있느냐” 물으시니, 곧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임금께서는 측은히 이를 딱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폐해를 제거하고 사람이 안심하게 할 수 있느냐” 하셨다. 아뢰기를, “전하께옵서 다행히 신의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신이 한 가지 계교가 있사운데, 국가의 재정도 축나지 아니하며 민간의 노력도 동원시키지 않고, 다만 중들을 모집하여 그 허물어진 집을 새로 건축하고 양민을 모아들여 그 옆에 가옥을 짓고 노는 백성들을 정착시키면, 짐승이나 도둑의 해가 없어질 것이며, 통행자의 난관이 해소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께서는, “좋다. 네가 그것을 마련해 보라” 하셨다.

위의 기록은 혜음원 창건 배경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 중 (가)는 혜음령의 지리적 위치와 혜음원이 세워지기 전의 교통 및 주변 상황을 기록하였다. 혜음령은 개경에서 남경(서울)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개경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지만 지형도 험하고 주변에 민가도 없어서 통행에 불편이 큰 오지였다. 산짐승과 도적이 자주 출몰하여 위

험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고 무기를 가지고서야 고갯길을 넘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다. 해음원 이전에도 석사라는 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없어지고 그 이름만 남아 있었다.

더구나 1068년(문종 22) 남경에 신궁新宮이 세워지고 1099년(숙종 4)부터 남경 건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1101년(숙종 6)에 본격적으로 남경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1102년(숙종 7) 8월에는 왕이 남경을 순행하여 머물다 돌아오기도 하였다. 숙종의 남경 순행 길은 개성-장단-파주(봉성현)-해음령-고양-서울을 지나는 길이 활용되었다. 예종 대에도 왕의 남경 순행은 계속되었고 역시 파주에서 해음령을 거쳐 고양을 지나는 길이 이용되었다. 국왕의 행차가 빈번해지면서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에 편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사실 파주에서 서울 사이 길은 산지와 계곡을 통과하기 때문에 고갯길이 많고 인적도 드물었다. 군사를 동반한 왕이나 관리들의 통행에는 큰 위험 부담이 없지만 민간인이 통행하기에는 상당한 장애가 있었던 것이다. 국왕과 관리뿐만 아니라 민간의 통행이 자유로워야 교통로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군가 민간의 통행을 위해서는 이곳에 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통행자의 편리를 위한 시설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새로 만드는 데도 상당한 물자와 인력이 소요되지만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람이 바로 이소천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소천은 왕의 명령으로 남쪽 지역을 시찰하고 돌아오면서 해음령 주변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국왕의 명을 받고 백성들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찰에 나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해음령의 통행 불편이 백성들의 생활에 커다란 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국가에서 해음령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위의 기록으로 보아 국가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나 보다. 결국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민간의 힘을 빌리기 위한 방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원의 창건은 사찰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물론 원을 건설한 이후에도 운영을 사찰에서 맡아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랑하는 백성들을 모아 주변에 마을을 만들어 정착시켜 치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실 고려시대에는 사찰에서 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개경과 주변 지역은 물론이고 지방의 교통의 요지나 고갯길을 중심으로 사찰의 부속시설로 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혜음원도 이러한 예를 따라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원은 단순한 숙박시설만이 아니라 물자와 정보가 교환되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사원이 창건되면 자연히 신도·상인·여행자 등이 몰려들어 마을도 형성되어 교통로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혜음원은 혜음령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 세워질 때에는 재정 형편상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소천은 이 문제를 불교 사원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혜음원의 창건 과정과 변화

혜음원의 창건 과정 역시 「혜음사신창기」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먼저 기록에 나타난 창건 과정을 살펴보자.

(다) 이리하여 그는(이소천) 공무를 띠고 묘향산에 가서 대중 가운데서 이르기를, “아무 곳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나라에서는 차마 토목공사를 가지고 백성을 괴롭힐 수가 없다. 옛날 스님들은 곤란한 처지에 빠진 것을 보면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는 희생심을 발휘하였는데 여기서는 누가 나를 따라 저곳에 가서 일을 해보겠는가” 하였더니 절의 주지 혜관 스님이 기꺼이 그를 따랐으며, 그 무리 중에 따라 가려는 사람이 백 명이나 되었다. 혜관 스님은 늙어서 가지 못하고 부지런하며 진실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 증여證如 등 16명을 선발하여 경비를 마련하여 보냈다. ㉡연장을 버리고 목

재와 기와를 모아들여 경자년(1120) 봄 2월에 착공하여 임인년(1122) 봄 2월이 되어서는 일을 모두 마쳤다. ㉔절이 불당과 유숙하는 건물부터 주방, 창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소가 마련되었고, 또 생각하기를 ㉕“임금께서 남쪽으로 순수하신다면 행여 한 번이라도 이곳에 머무르실 일이 없지 않으리니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하여 드디어 따로 별원別院 한 개소를 지었는데, 이곳도 아름답고 화려하여 불만하게 되었다. 지금 임금께서 즉위하시어 절 이름을 혜음사라고 내리셨다.

혜음원을 창건하기 위하여 이소전은 먼저 묘향산에 있는 절을 찾아갔는데 그 절이 어떤 절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개경 근처에도 절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멀리 떨어진 묘향산까지 갔는지 그 이유가 의문시된다. 아마도 먼 거리를 마다하고 묘향산까지 가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왕실과 절의 주지인 혜관 사이에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보인다. 아니면 이소전이나 그의 집안과 혜관 사이에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도 짐작하여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왕이 이소전에게 명하여 중 백여 명을 모집하여 그곳에 가서 초막을 지어 머물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소전이 혜관과 개인적인 친분보다 국왕의 명령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더구나 국가 재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소전 개인의 힘으로 일을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소전은 단지 국왕의 명령을 혜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국왕과 혜관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멀리 묘향산에 있었던 혜관에게 이소전을 보낸 것도 바로 국왕의 명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국왕의 바람대로 혜관은 혜음원의 창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혜관이 개입하면서 혜음원의 공사 준비 작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 증여 등 기술자 16명을 선발하여 보냈는데 이들이 모두 승려들로 혜음원의 설계와 시공을 담당한 핵심 세력이었다. 1119년 8월에 국왕에게 혜음원 창건을 건의하였는데, 불과 6개월이 지난 1120년 2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만 2년이 지난 1122년 2월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혜음원 창건의 일차적인 물자와 자금은 혜관이 마련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혜음원을 창건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다른 곳에서도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던 듯하다. (다) ㉔에 “목재와 기와를 모아들였다”는 것으로 보아, 우선 이소천·혜관·증여 등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국왕의 측근들도 동참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파주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지방 세력이나 신도들도 대거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비구 응제에게 명하여 그 일을 주관하도록 하고 제자 민청을 부책임으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감독한 것은 이소천이 아니었다. 응제나 민청 같은 승려들이었다. 또한 「혜음사신창기」에도 “응제는 일을 맡았다가 오래가지 못하고 민청이 이를 인계하여 끝까지 완성을 보았다. 그가 경비에 사용한 것은 위에서 내리신 것과 여러 신도들이 희사한 것이다. 그 이름과 목록을 갖추어 후면에 기록한 바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후면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참여한 사람들을 알 수 없다.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공사의 책임을 맡아서 혜음원을 완공한 인물이 민청이었다. 민청은 응제의 제자라고 하는데 출신을 짐작할 수 없다. 혜관이 보낸 16명의 승려들 중에 한 사람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증여도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지만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기록이 없다. 중간에 공사의 책임자가 교체되었던 것으로 보아 소요되는 자금과 물자의 조달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양한 곳에서 후원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처음 혜음원의 창건을 건의했던 이소천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가 혜음원의 창건을 계획하고 주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하급관리 에 불과하였다. 왕의 측근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 왕실과 혜음원 공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후원 세력을 모집하고 그들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실제 공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혜음원의 공사는 승려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완성 후 운영하는 데는 이소천도 일정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혜음사신창기」에는 1140년경에도 여전히 이소천은 혜음원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혜음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다) ㉔의 기록에 의하면 법당을 비롯한 사찰 구역과 숙박과 취사 시설을 중심으로 한 원院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찰은 불당과 승려들이 거주하는 승방 및 주방 창고 등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은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방과 휴게 시설이 있었을 것이다. 사원寺院으로서 혜음원의 기본적인 시설들이 모두 갖추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행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의 행차에 대비하여 다시 별원을 축조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별원은 말 그대로 ‘별도의 원院(담장을 두른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혜음원 한쪽에 국왕을 위한 별도의 행궁을 건축한 것을 말한다. 사실 숙종과 예종 시대에는 국왕이 수차에 걸쳐서 남경을 행차하였다. 국왕의 행렬이 혜음원을 지나기 때문에 행궁을 건설할 필요성이 제기된 듯하다. 이것은 처음 혜음원을 만들 때는 계획된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혜음원이 완공된 후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1122년 4월 인종이 새로 즉위하였는데 그 이후에 별원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지 인종이나 그 이후 고려의 왕들이 혜음원에 다녀갔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분명하지 않다.

혜음원이 완성된 후 혜음령의 통행은 아주 편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사정이 변하게 되었다. 「혜음사신창기」에는 혜음원이 완성된 후의 사정과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라) 아! 깊은 숲 속이 깨끗한 집으로 변하였고, 무섭던 길이 평탄한 대로가 되었으니, 그 이익이 또한 넓지 아니한가. 또한 미곡米穀을 갖추어 놓고 그 이익을 얻어서 죽을 썬어서 여행자에게 공급하였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소천은 이것을 영원히 계속하려 하였더니 정성에 감동된 바 있어 희사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겼다. 임금께서 이를 들으시고 은혜로운 희사를 후히 하시었다. 왕비 임씨도 또한 들으시고 기뻐하여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곳에서 실시하는 일은 내가 담당하리라” 하시고 다 없어져가는 식량을 보태주시며 파손되어 못쓰게 된 기구를 보충하여 주셨다. 이리하여 모든 것이 다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게 되었다.

혜음원의 운영은 혜음사에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사찰에 딸린 원은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 혜음원은 처음에 각지에서 후원자들이 기부한 쌀을 모아 놓았다가 죽을 쑤어서 여행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 일반인들이 쌀밥을 먹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또한 양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쌀에 잡곡을 섞거나 푸성귀를 섞어서 죽을 쑤어서 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혜음사에서도 혜음원에 쉬러 온 여행자들에게 죽을 쑤어준 것이다. 그런데 점차 후원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김부식이 기문을 작성하였던 1144년 무렵에는 마침내 여행자들에게 죽을 쑤어 제공하는 일도 어렵게 되었다. 처음에 혜음원을 설립한 목적이 쇠퇴하게 되자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던 이소천이 다시 나서게 되었다. 「혜음사신창기」에 의하면 1144년경에 이소천은 벼슬에서 물러나 벼룩을 입고 스스로 거사를 칭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가 이때 혜음원에 머물러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가 혜음원에서 행인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을 지속시키려 한 것으로 보아 혜음원의 사정을 전해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퇴하여 혜음원에 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이소천이 혜음원의 운영에 계속 간여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소천의 노력으로 여러 곳에서 후원이 다시 재개되어 원의 재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던 것 같다. 특히 인종과 인종비 임씨는 혜음원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자로 등장하여 혜음원은 일종의 왕실의 구호기관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 이 당시에는 혜음원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나 건물도 많이 쇠락해졌던 것 같다. 1144년은 왕실의 지원으로 혜음원이 다시 크게 보수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혜음사신창기」는 처음 완성된 1122년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보다 22년 늦은 1144년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1144년경에 혜음원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1144년경부터 왕실에서 혜음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지고 왕실에서 소용되는 집기도 새로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념하여 당대 최고의 문신인 김부식이 「혜음사신창기」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144년 이후 혜음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했는지 기록에는 자세하지 않다.

고려시대 각종 기록에도 혜음원에 대한 내용은 찾기가 어렵다. 혜음원에 대한 기록은 조선 초기의 기록에서 다시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혜음원(사)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1 파주 역원조와 고적조에 보이고 있다. 고적조에는 ‘고혜음사’라 기록되어 사찰은 이미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역원조에는 혜음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절은 없어졌지만 원院의 기능은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에 승유역불 정책이 펼쳐지면서 사찰에서 운영하던 원을 모두 국유화하였다. 원을 운영하던 승려들은 법의를 벗고 속세로 나와서 원주가 되었다. 원에서 소용되는 재정은 국가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혜음원도 혜음사는 없어지고 원의 기능만 남아 국가 관리 하의 원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고혜음사’는 “혜음령에 있다”고 하였고 다시 산천조에서 ‘혜음령’은 “주 남쪽 35리 고양 경계에 있다”고 기록되었다. 이에 반하여 혜음원은 주 남쪽 26리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혜음원은 원래 고려시대의 혜음원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 고혜음사지의 위치는 혜음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혜음령 북쪽 계곡에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혜음원의 위치는 고려시대 혜음원의 위치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조선시대 혜음원의 규모는 고려시대에 비하여 축소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혜음원 부근에 분수원(파주 남쪽 24리), 광탄원(파주 남쪽 10리) 등이 있었다. 특히 분수원은 파주에서 고양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혜음원과 지근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 권39 세가 39 공민왕 10년조에 의하면 공민왕이 홍건적을 피하여 남행할 때, 임진강을 건너서 도솔원—분수원—사평원 등을 거쳐서 광주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공민왕이 혜음원에 머물지 않고 주변에 있는 분수원에 머물렀던 것이다. 혜음원에 행궁이 있었다면 공민왕이 분수원에 머무르지 않고 혜음원에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혜음원은 이미 공민왕 10년 이전에 12세기의 모습을 상실하였고 분수원보다도 규모가 작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파주 역원 광탄원조에 부기된 권근의 기에는 광탄원이 양 서울의 사이에 있어서 행인들이 많이 머문다고 하였다. 이 같

은 기록으로 보아 고려 후기 이후 분수원이나 광탄원에 비하여 혜음원은 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분수원과 광탄원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혜음원이 이들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발굴 조사 결과 나타난 혜음원의 구조

혜음원에 대한 발굴 조사는 2008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혜음원의 중심 지역은 대부분 조사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아직 주변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가 남아 있어서 정확한 규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혜음원의 구조는 남한 지역에서는 출토된 예가 없는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다. 고려시대 중기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고려의 궁궐이었던 만월대와 입지나 구조가 비슷하여 주목된다.

혜음원은 크게 두 개의 건물군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를 편의상 원지 일곽과 행궁지 일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지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행궁(별원)을 만들었다는 「혜음사신창기」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에 의하면 혜음원은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쌓아서 모두 9단의 건물지를 마련하고 일직선으로 연결된 문지를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을 이루면서 건물을 축조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행궁지는 혜음원의 동남쪽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혜음원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해당된다. 사방이 높은 담으로 막혀 폐쇄된 공간이다. 동쪽 끝에 왕이 기거할 수 있는 정전이 있고 남쪽 끝에는 연회나 모임을 할 수 있는 큰 누각 건물이 있다. 정전에서 누각까지 문들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중심을 이룬다. 그 좌우로 동일한 형태와 규모를 가진 건물이 대칭을 이루고 배치되어 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군데군데 연못이 있고 연못을 서로 잇는 수로를 마련하여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하였다. 남쪽 담장과 축대 아래에는 큰 수로를 조성하고 각종



해음원 조사 지역 원경

조경시설을 마련하였다. 정전의 뒤에도 계단식으로 조성된 후원이 있고 후원 중앙에는 계단이 있고 계단 끝에는 작은 문을 마련하여 외부로 통할 수 있게 하였다. 이곳은 국왕이 행차시 국왕과 신료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추정된다.

행궁지는 남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와 구조를 가진 건물들로 조선시대의 궁궐과도 차이가 있다. 각 건물은 기둥을 받치는 초석 아래에 초반이라고 부르는 잘 다듬은 돌을 놓아 격식 있게 지었다. 건물의 규모가 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도 넓어서 내부 공간이 일반 건물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 축대나 계단에 사용된 돌도 고급 화강암 자재를 잘 다듬은 것들이다. 특이한 것은 온돌을 시설하지 않았고 난방을 위해 벽난로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아마도 침대와 탁자 등을 놓고 입식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왕실과 귀족들은 온돌보다 입식 생활을 즐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전 주변에서는 용두·치미·취두·잡상 등 고급 건물에서 사용되었던 특수한 기와들이 출토되었다. 또

한 혜음원이라 새겨진 막새기와가 대량으로 출토되기도 하였다. 건물들은 대부분 불에 타서 무너져 내렸는데 무너진 부분의 처마선을 따라서 암막새와 수막새기와들이 출토되었다. 건물이 불에 타서 무너진 방향도 알 수 있었다.

원지는 서쪽의 정문에서부터 가장 동쪽에 위치한 대형 건물지를 연결하는 선이 중심이다. 이 축선을 따라서 각 단마다 문을 설치하고 그 좌우로는 행궁과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원지의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대형 건물지 뒤에는 사각형의 연못이 있고 연못 뒤에는 후원과 담장이 있다. 연못 중앙에 징검다리가 있어서 후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담장 모서리에는 외부에서 연못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수로를 마련하였다. 연못에 고인 물은 행궁지 축대를 따라 만들어진 수로를 통해 빠져나가 행궁지의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하였다. 원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앞에서 말한 동쪽 끝부분의 대형 건물지인데 이 건물지가 어떤 용도의 것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건물의 규모나 형태도 행궁지와 차이가 없고 기단은 청석을 깔아서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이 건물지 앞의 마당도 청석으로 포장되어 있다. 행궁 정전을 제외하면 혜음원에서 가장 격식 있는 건물에 속한다. 건물지의 대부분이 경작지를 조성하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다만 남쪽의 일부 기단과 초석이 남아 있어서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물지의 규모, 위치, 형태, 장식 수법 등으로 보아 불당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불당 뒤에 연못을 배치한 예가 없어서 선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건물지 북쪽에서 출토된 건물지에서는 다량의 청자편이나 생활용구들이 출토되었다. 혜음원의 생활용 집기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건물이 「혜음사신창기」에 기록된 주방일 가능성이 있다. 그 북쪽은 작은 개울을 두고 축대와 담장을 쌓아 마감하였다. 담장 외부로 우물이 있는데 지금도 수량이 풍부하다. 원지의 건물들은 두 칸마다 벽난로와 비슷한 난방시설을 설치하였다. 두 칸이 하나의 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지도 행궁지와 마찬가지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수로를 조성하고 건물지 중간으로도 암거(숨겨진 수로)를 마련하여 상시 물이 흐르도록 하였다. 또한 수로 중간에 물을 이용한 조정시설을 만들어 방 안에서 물소리가 들리도록 하였다. 원지의 북쪽과 서쪽은 수해와 경작

지 조성으로 대부분 파괴되어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행궁지 대형 누각 건물지 서쪽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개축된 건물지가 출토되었다. 원래 건물지였던 곳을 연못과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헐고 그 서쪽에 지반을 높여서 다시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지에서는 조선시대 백자가 출토되었는데 가장 늦게까지 활용되었던 건물지로 추정된다. 혜음원의 주문지에서는 문화석과 문지방돌이 출토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였던 것을 보여주듯이 돌이 닳아 파여 있었다. 주문지 중문까지는 양 옆에 담장을 쌓은 흔적이 노출되었다. 남쪽 담장에 잇대어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누각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혜음원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수로가 모두 이 연못으로 모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모인 물은 다시 주문지 남쪽의 수로를 통하여 외부로 흘러나가도록 하였다. 주문지 외부에도 연못이나 출입과 관련된 도로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굴 조사로 밝혀진 혜음원의 구조는 이곳이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평지의 궁궐이나 사원처럼 정연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혜음원이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건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물의 형태나 규모도 다른 데 비하여 크고 장엄하며 조경도 잘 이루어져 있었다. 국왕의 행궁에 걸맞게 아주 격식을 잘 갖추어 지은 건물이었다. 발굴 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도 최고급품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왕실에서 직접 집기를 하사하였다는 「혜음사신창기」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혜음원은 개성의 고려 궁궐터 만월대와 더불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건물지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려 전성기 왕실과 귀족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발굴 조사 결과 혜음원은 화재에 의하여 전체 건물이 한 번에 없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혜음원지 전체에 걸쳐서 불타서 퇴적된 층이 약 20~30cm 정도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혜음원 전체가 일시에 화재로 사라졌던 것은 실수로 인한 것이기보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중기 이전의 건물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 등은 모두 고려 후기의 건물지이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건물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는 고려시대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대부분 불에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고려 중기 이전의 건물들은 몽골침략기에 대부분 불타 없어졌다. 혜음원도 몽골군의 진군로에 있었기 때문에 몽골군에 의하여 불타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1258년(고종 25) 몽골군이 개경에 주둔하면서 혜음원 주변 교하와 봉성 일대를 약탈하고 양과 말을 놓아 먹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당시 혜음원이 있었던 봉성현 일대는 몽골군의 약탈과 방화로 거의 폐허가 되었다. 이때 혜음원도 모두 소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혜음원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모두 대부분 13세기 이전의 것이라는 점을 보아도 몽골침략기에 혜음원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이 되었고 왕실의 재정도 약화되어 불에 탄 혜음원을 다시 재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기록에는 고려 후기나 조선 초에도 혜음원에 대한 기록이 보이고 있어서 이때까지는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굴 조사 결과 15세기경의 건물지 흔적은 행궁 정전 일대나 행궁 누각지 서쪽 등 일부 지역에서만 보이고 있다. 원래의 혜음원에 1/10도 안 될 정도로 축소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258년경에 불타 없어진 후 나중에 일부 건물만 보수되어 원으로 이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혜음원에 대한 발굴 조사는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조



“惠陰院(혜음원)” 명
암막새

사 결과는 향후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바뀔 수 있다. 아직 불당지와 원지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고 현재 원지로 추정되는 곳에 불당과 승방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서쪽 부분에서도 또 다른 유적이 출토될 가능성이 있다. 혜음원 북쪽 능선으로 현재 군부대의 사격장이 있는 곳에서도 혜음원지에서 사용된 기와와 동일한 기와들이 다량 출토되고 있어서 여기에도 혜음원과 관련된 유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혜음원에 대한 의문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도 「혜음사신창기」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남한에서는 유일한 고려시대 행궁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도 분명하다. 향후 혜음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고려시대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의 호족

박경안_중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고려 정권의 성격과 토착세력

고려는 호족연합정권이라고도 한다. 태조 왕건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후삼국의 분열을 극복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낮춰 제 호족세력을 포용한 탁월한 정치지도력 때문이다. 나말여초의 호족은 흔히 그 출신으로 보아 토착촌주, 진골 내지는 6두품, 해상세력 혹은 군진세력 등으로 구분된다. 호족이라는 용어는 원래 중국사에서 차용된 것으로 혹자는 호부층(豪富層)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신라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난 독자적 정치세력을 뜻한다. 호족들 상호간에는 계서적(階序的) 지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계서적 지배질서가 통일 후 고려의 군현지배체제로 계승 발전하게 된다.

파주 지역을 통해 과거 호족으로서 두드러진 활동을 기록한 자료는 많지 않다. 그것도 고작 호족으로 추측되는 윤신달(尹莘達)이라든가 염형명(廉刑明) 혹은 노강필(盧康弼)에 관한 이야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읍지류에 남아 있는 선생안(先生案)도 조선조의 경우에 한정되고 있어 호족의 뿌리를 찾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고려사』를 통해서 파평현과 적성현은 장단현에, 봉성현과

교하현은 양주에 각각 예속된 속군屬郡·속현屬縣이었다는 점은 계서적 지배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 그 원인은 후대적인 것일 수도 있겠으나 과거 토착세력의 존재형태와도 일정한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 점은 지금까지 별로 주목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호족 상호간의 지배관계를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예종조에 이르러 특히 이들 지역에 유망流亡이 많았다는 사실과 감무관監務官을 파견하여 위무하였더니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러한 정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주요 성씨를 중심으로 파주 지역의 호족세력의 존재와 그 성격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주요 호족세력

1. 파평 지역과 윤신달

『고려사』 열전 기록에 의하면, “윤관尹瓘(?~1111)의 자는 동현同玄이니 파평현 사람이다. 그의 고조 신달辛達(莘達)은 태조(왕건)를 보좌하고 삼한공신三韓功臣 칭호를 받았으며 아버지 집형執衡은 검교소부소감檢校少府少監 벼슬을 지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윤신달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와 『용연보감龍淵寶鑑』 등의 문헌에 의하면, 윤신달은 파평 윤씨의 시조로 파평산坡平山 기슭에 있는 용연지龍淵池 가운데 있던 옥함玉函 속에서 출생했다고 하며, 그가 옥함에서 나올 때 겨드랑이에 81개의 비늘과, 발에는 7개의 검은 점이 있었고, 손바닥에는 윤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성姓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문무가 출중하여 파평산 금강굴에서 용마를 얻은 후 파평산 치마대馳馬臺에서 무예를 닦았다고 한다. 태봉국에 출사하여 어느 해에 나라가 온통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자 궁예郚裔(?~918)가 문신에게 제문을 지어 올리도록 지시했는데, 이때 윤신달이 “(하

늘이시여) 군신이 죄가 있으면 마땅히 재앙을 달게 받겠지만 어찌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초목을 마르고 타게 하나이까?”라는 제문을 지어 올리니 이것이 채택되어 기우제를 지내자 곧바로 비가 쏟아져 뭇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파평 윤씨 족보에 의하면, 태조의 역성혁명 당시 왕건을 추대했다고 했으며 통일 후 개국통합開國統合 삼한벽상三韓壁上 익찬공신翊贊功臣 2등에 봉해졌다고 한다. 파평 사저에서 송도로 말을 타고 조정에 입궐 당시 임진강을 매일 건넜는데 강을 건널 적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육지를 다니듯 하였다 하며 말이 물을 마신 나루[如飲津]를 여음 또는 음진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태조 왕건의 뒤를 이어 혜종이 왕위에 오르자 윤신달은 동경대도독부東京大都督府로 부임한 바 있으며 81세로 서거하니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로 추증하고 관내인 기계현 아치동(현 경북 영일군 기계면 종계동)에 장례를 지냈다 한다.

그런데 윤관 이전 선대의 신분을 알아볼 수 있는 직함은 묘지명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 이를테면 윤해尹垓 묘지명에는 선조인 신달은 삼한공신의 호를 받았는데 공신 선지先之를 낳았으며, 선지가 좌복야 금강金剛을 낳고, 금강이 우복야 집형을 낳고, 집형이 문숙공 윤관을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윤언이尹彦顧 묘지명에 의하면, 증조부(曾王父)인 선지가 증군기감贈軍器監, 조부(大王父)인 집형이 증태자태보贈太子太保의 벼슬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윤언민尹彦旼 묘지명에는 집형이 증상서우복야贈尙書右僕射로 되어 있다. 이처럼 선지 이하 자손들의 직명이 추증追贈의 형식을 띠고 있고 더군다나 윤신달은 삼한공신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사』 세가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파평 윤씨는 윤관이 출세하기 전까지는 비록 삼한공신의 후예라고는 해도 그렇게 유력한 가문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윤신달이 평소 말 타고 출퇴근하였다는가 용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태자를 가르쳤다는가 제문을 지어 올릴 정도로 문장력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문무에 출중하였다는 기록이 사실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고 더구나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을 추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공로가 있었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아들도 공신이었다는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윤신달은 아들 선지와 함께 파평의 토착세력으로 출발하여 궁예 정권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인정받고 결국

왕건의 추대 과정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결과 삼한공신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윤관은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이부상서 등을 거쳐 1104년 추밀원사로서 동북면행영병마도통사東北面行營兵馬都統使가 되어 여진을 정벌하다가 실패하였다. 그 뒤 별무반別武班을 창설하였으며 1107년(예종 2) 여진정벌군 원수로서 17만 대군을 이끌고 동북계에 출진하여 여진을 평정하고 이듬해 봄에 개신, 그 공으로 추충좌리평응척지진국공신推忠佐理平戎拓地鎮國功臣·문하시중·상서이부판사尙書吏部判事·군국중지사軍國重知事가 되었다. 그 뒤 조정은 9성을 지키기 어렵다 하여 여진에게 돌려주자, 여진 정벌의 실패로 모함을 받아 벼슬을 빼앗기고 공신평마저 삭탈되었으나, 예종의 비호로 1110년 수태보守太保·문하시중·병부판사兵部判事·상주국上柱國·감수국사監修國史가 되었다.

파평 윤씨 세계는 윤관에 이르기까지는 단계로 이어지다가, 윤관이 여섯 아들을 두어 그 아랫대로 내려가면서 수십 파로 갈라진다. 따라서 파평 윤씨들은 모두 윤관 장군의 후손들이다. 윤관의 여섯 아들은 언인彦仁·언순彦純·언암彦巖·언식彦植·언이彦頤·언민彦旼이다. 이중 언민을 제외한 후손들이 모두 번창하여 현달顯達했는데 특히 다섯째 아들인 윤언이의 후손이 대대로 고관 및 학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

문강공文康公 윤언이는 인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송나라에 다녀왔으며, 1135년 묘청妙淸의 난 때는 원수元帥 김부식金富軾의 막료로 출전하여 서경西京 함락 때 큰 공을 세워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었다. 그의 아들 삼형제 인첨麟瞻·자고子固·돈신惇信은 모두 대과에 급제하였다. 윤인첨은 의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금나라에 다녀왔고 조위충趙位寵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원수元帥가 되어 이를 정벌, 문하시중이 된 인물이다.

윤인첨의 아들 3형제도 대과에 급제하여 양대兩代에 걸쳐 3형제씩 대과급제 함으로써 이들 집안을 '삼제택양사택三第宅兩師宅'이라 불렀다. 또 이들 후손 중에 참판공參判公 윤민신尹民新이 있었는데 그의 다섯 아들이 모두 대과급제하였고 이 중 한 사람이 장원급제하였다. 이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참판공이 사는 마을을 '오자등과五子登科 터'라 불렀다고 한다. 이 밖에도 파평 윤씨 가문에는 급

제자가 많은 만큼 과거에 얹힌 수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2. 염형명과 파주 염씨

파평현의 남쪽에 있었던 봉성현과 관련하여서는 파주 염씨가 주목된다. 이 가문이 명문거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는 명종조의 재상이 된 염신약(廉信若)부터이다. 이후 가세가 번성하여 그 후손이 권문세족으로 발전하여 원의 간섭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선대에 형명(邢明)은 태조 왕건을 도와 삼국을 통일한 삼한공신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염신약에 이르기까지 파주 염씨의 세계를 『고려사』, 묘지명 및 족보를 참고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염형명(廉邢明)(삼한공신 三韓功臣) - 위위(衛尉監軍器監) - 가칭(可僞)...

- 현顯 - 한漢(상서 尙書, 문종조 文宗朝) - 덕방(德方)(대부소경 大府少卿)

- 신약(信若)(정당문학 政堂文學)

현재 파주 염씨는 형명을 시조로 하면서 제신(弟臣)을 증시조로 삼고 있으며 파주 단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파주 염씨의 세계는 유감스럽게도 그 계보가 확실치 않다.

이를테면 『삼국유사』에는 신라 선덕여왕 때에 국정에 참여했던 염종(廉宗과, 진덕여왕 때 6공(六公) 가운데 1인으로 김유신과 함께 대신을 지낸 염장(廉長)을 비롯하여, 국보인 경복궁의 ‘염거화상탑(廉居和尚塔)’의 장본인 ‘염거’ 등이 등장하여 이들이 파주 염씨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다. 중국에서 귀화한 성씨로 보는 견해도 있음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한편 『고려사절요』에는 918년(태조 원년) 8월 상(湘)에게 홍유(洪儒)·배현경(裴玄慶)·신숭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과 더불어 개국공신 2등을 내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는 이후에도 무장으로서 주로 북계 지역의 진수(鎭戍) 기지를 설치하는데 활약하였다.

(태조) 11년 2월에 대상大相 염상廉相과 경卿 능강能康 등을 안북부安北府에 보내 성을 쌓게 하고 원윤元尹 박권朴權으로 진두鎭頭를 삼아 개정군 7백 명을 거느리고 이곳에 주둔하여 지키게 하였다.

12년 3월에 대상大相 염상廉相을 보내 안정진安定鎭에 성을 쌓고 원윤元尹 언수고彦守考를 시켜 이곳을 수비하게 하였다.

(13년) 가을 8월에 대상 염상廉相을 마산馬山에 보내 성을 쌓고 안수진安水鎭이라 이름하였으며, 정조 亨행斯幸으로 진두를 삼았다.

17년에 대상 염상廉相을 통해진通海鎭에 보내 성을 쌓고 원보元甫 재원才筭으로 진두를 삼았다.

염상은 왕건의 남방 경략에 자칫 방해가 될 수 있는 북방 지역의 안정에 절대적 기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943년(태조 26) 정유에 재신宰臣으로서 왕규王規·박수문朴水文과 함께 임종에 앞서 왕을 모셨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임이 매우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앞서의 형명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인물이 동일인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한다.

이 같은 파주 염씨의 세계에 대한 의혹 내지는 혼선은 여말 흥방興邦이 당시 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이인임李仁任의 일파가 되어 문신들을 추방하고 권세를 전횡하다가 최영崔瑩·이성계李成桂에게 1388년 무진참화 때 거의 멸문지화를 당한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형명과 관련해서는 『고려사』에 나와 있는 아래의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볼 따름이다.

(문종 10년) 2월 갑오일에 해당 기관에서 아뢰기를 “번인蕃人들에게 납치되어 갔던 염가칭廉可稱은 군기승 염위廉位의 아들이요, 삼한공신三韓功臣 사도司徒 염형명廉刑明의 후손으로서 경술 연간에 환위공자군環衛公子軍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거란군이 침입하여 서울이 소란하게 되자 부모를 모시고 자기 고향인 봉성현峯城縣(경기도 파주)으로 갔습니다. 도중에 적을 만나서 그들에게 납치되어 갔다가 청녕淸寧(거란의 도종연호) 원년 정월에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도망하여 왔사오니 그의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염업전

永業田과 가택을 돌려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왕이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가칭은 공신의 자손으로서 청장년 시기에 적에게 잡혀갔다가 번토蕃土에 있는 처자를 버린 채 다만 아들 한 명만을 데리고 백발이 되어 돌아왔으니 그 정상이 매우 가엽고 민망하다. 그의 세업으로 내려오던 토지와 주택을 주어라!”

염가칭은 본래 봉성현 사람이었다. 공신 자손으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거란족이 쳐들어오는 난리통 속에서 뜻밖에 변인(여진족女眞族)들로부터 납치당하는 불행을 당하였던 것이다. 1010년(경술년)에서 1055년(청녕 원년)까지의 무려 45년의 세월을 변인들에게 잡혀 있었던 것이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으나 끝내 아들 하나만 데리고 도망쳐 나왔다. 위와 같은 상황은 얼핏 이해하기 어려우나 당시의 주적主敵은 여진족이 아니라 거란이었다.

어쨌든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문종은 세업으로 전해오던 땅과 집을 가칭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에 따르면 선조 형명은 삼한공신으로 사도司徒의 직책에 있었다. 사도는 태부太傅·대위大尉·사도 삼공三公의 하나로 삼사三師와 함께 임금의 고문 구실을 하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이었다. 이는 형명이 공신으로서의 상당한 지위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는 환위공자군環衛公子軍에 편입시키는 한편 자자손손 물려받을 수 있는 영업전과 주택을 지급하여 사회경제적 뒷받침을 하였던 것이다.

가칭은 변인들에게 잡혀가기 전에는 부모와 함께 개경에 살고 있었다. 봉성현에 내려간 것은 난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곳에는 영업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경작하는 노비들을 위시하여 염씨 집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비록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붙잡혔으므로 이러한 배경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봉성현에는 선조 이래로 지배해오던 물적·사회적 토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후손인 염신약에 관한 『고려사』 권99, 열전의 기록이 참조될 듯하다.

염신약의 자는 공가公可이며 봉성군峰城郡 사람이다. 인종 때에 과거에 급

제하고 광주 장서기廣州掌書記로 조동되었는데 바른 도리로써 공직에 복무하였다. 명종이 즉위한 후 전일 잠저潛邸(왕위에 오르지 않은 때) 시의 은정 관제로 특별히 등용되어 국자제주 한림 시강 학사國子祭酒翰林侍講學士로 임명되었다가 판태부사判太府事로 전임되었다. 그가 과거 시험을 맡아보아서 많은 명사를 선발하였으므로 왕이 더욱 그의 재능을 사랑하였다. (중략) 염신약의 토지[田]가 봉성峰城에 있었는데 정중부가 그 토지를 강탈하였다가 얼마 후에 돌려주었다. 염신약이 종을 보내 수확을 하게 하였더니 정중부 집 종[家奴]이 도중에서 노리고 있다가 강탈하려 하므로 서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정중부가 염신약의 종을 체포하여 가구소街衛所에 투옥 살해하고 증방重房을 시켜 염신약을 탄핵하게 하니 왕도 마지못해 그를 파면시켰다. 그러나 미구에 염신약을 이부상서吏部尙書로 임명하고 후에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삼았다.

염신약 역시 앞서의 가치과 마찬가지로 봉성현 사람이었다.(봉성현峯城縣은 나중에 서원현瑞原縣으로, 다시 서원군瑞原郡으로 승격되었으나 간혹 봉성군峯城郡으로도 불렸던 것 같다.) 인종조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주로 무신집권기인 명종조에 활동한 인물로 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염신약의 소유지가 봉성군에 있었으나 정중부가 그 땅을 탐하여 강탈하려다 실패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정중부와 염신약의 가노 사이에 수확물을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진 결과 결국 신약이 피죄인被罪人으로 몰려 한때 파면되기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이다.

염신약의 땅은 당대의 실력자인 정중부가 욕심을 낼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갈등의 당사자로 등장하는 가노들은 수조노收租奴로 때로 토지를 관리하기도 했던 사람들로 생각되며, 그런 점에서 신약의 토지는 이를테면 민전형民田型的 농장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기반은 봉성군 일대의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명종이 잠저 시에 신약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후에 승익承益·제신梯臣 그리고 흥방興邦으로 이어지는 정치권력의 배후에는 파주 염씨 계열의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었다.

3. 노강필과 교하 노씨

교하 노씨는 고려 중기 이래 대표적인 권문척족權門戚族이다. 『교하노씨세보交河盧氏世譜』에 의하면, 도시조都始祖 수穗의 둘째 아들 오塢가 신라 말에 아버지를 따라 동래東來하여 교하백交河伯에 봉해졌으므로 시적始籍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塢의 후손 강필康弼이 신라 말에 기계紀溪에 세거世居하면서 학문이 현달하여 문명을 떨쳤고, 관향을 장산章山으로 이관移貫하였다가 태조太祖를 도와 고려 창업에 공을 세우고 통합삼한개국공신統合三韓開國功臣으로 태자태사太子太師에 올랐으며 선성부원군宣城府院君에 봉해져서 교하交河로 복관復貫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관향을 교하로 삼고, 강필을 일세조一世祖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오면서 명문의 기초를 다졌다. 가문을 일으킨 대표적인 인맥을 살펴보면 2세손 안맹安孟이 동서면병마사東西面兵馬使를 역임했고, 그의 아들 영순永醇은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를 지낸 후 감수국사에 올라 가문을 중흥시켰다. 『고려사』 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그의 행적을 신고 있다.

노영순은 기계紀溪 사람이다. 의종 때에 내시로 들어가 함문지후閤門祗候로 되었다. 동북면병마사와 춘주도 안찰사가 보고하기를 “경기의 이천伊川, 안협安峽 지방과 동주東州의 평강平康, 동계東界의 영풍永豐, 의주宜州 및 서해西海의 곡주谷州 등 지방에 도적들이 횡행하고 있으니 체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왕이 노영순과 병부 낭중兵部郎中 김장金莊 등을 보내 도적의 괴수 이쌍異雙, 원의員衣, 박朴 등을 잡아 죽였다. 후에 벼슬이 승선承宣으로 올라갔다. 정중부의 난에 왕을 시종하던 관리들이 많이 살해되었으나 노영순은 본래 무관집 출신이었으며 또 무관들과 서로 친하였으므로 아무 일이 없었다. 후에 벼슬이 평장사平章事に 이르렀다. 아들은 노효돈盧孝敦인바 문음門蔭으로 벼슬자리를 얻어 증앙과 지방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여러 번 전공戰功을 세웠다. 그는 국가에 유익한 일이라면 아니 한 일이 없었다. 1208년(희종 4)에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로 있다가 죽으니 나이 62세였으며 의정懿貞이라고 시호를 주었다.

영순에게는 3형제가 있었는데 탁유卓儒는 형부와 공부 상서를, 지유智儒는 신창군新昌郡에 봉해져 신창 노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효돈孝敦은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냈다. 사세는 계속되어 7세조인 연演이 은청광록대부 북계병마사를 거쳐 지제고를 역임하였고, 9세조인 영수穎秀는 이부상서를 제수받고 당대 최고 권력자의 한 사람인 평양 조씨의 사위가 되었다.

10세조인 책顧은 아버지가 조인규의 사위가 되면서부터 부원세력으로 성장하여 딸이 원元의 순제비順帝妃가 되었으며 왕실의 옹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여 이를 계기로 일약 권문이 되어 좌정승에 올랐다가 공민왕의 반원정책에 연루되어 기철寄輶 등과 함께 제거되었다. 교하 노씨는 책의 네 아들을 파조로 하는데, 제濟의 후손이 서원군파瑞原郡派, 진蘊의 후손이 창성군파昌城郡派, 은崧의 후손이 경원군파慶原郡派이고 영湊의 후손이 신양군파新陽郡派로 나뉜다. 제는 정동행성 좌우낭중으로 있다가 공양왕대에 개혁파에 의해 주살되었으며, 진 역시 판밀직사사가 되었다가 아들 선瑄이 홍륜洪倫 등과 함께 공민왕의 시해에 참여하였으므로 다른 두 아들과 함께 주살되는 화를 입었다. 은 역시 원元에 벼슬하여 병부상서에 이르렀으나 1369년(공민왕 18) 복원北元의 사신으로 고려에 왔다가 무고하게 주살당하였다.

이처럼 교하 노씨는 고려 말 대원관계를 둘러싼 빈번한 정변에 연루된 자가 많아 가계의 부침이 심하였으나,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파주 염씨와는 달리 계속해서 벼슬길에 오름으로써 가문을 드높였다. 이를테면 진의 2세손 노한盧閑은 태종과 동서간으로 의정부 우의정 겸 판병조사에 올랐으며 단종조에 과거에 급제한 노사신盧思愼은 호조판서로서 대제학을 겸하였는데 1432년(세종 14)에 익대공신으로 좌찬성이 되었고 1487년(성종 18)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영의정에 올랐다. 학문에도 뛰어나 『삼국사절요』, 『경국대전』 등 많은 책의 간행에 참여하였다. 이 같은 두 가문 사이의 기본적 차이점은 여말 선초 국내의 정치적 격변기의 처세와 관련하여 앞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장단 한씨

장단 한씨長湍韓氏는 청주 한씨淸州韓氏의 파본이다. 청주 한씨의 시조는 한란韓蘭으로 고려 태조 때 삼한통합에 공을 세워 삼중대광三重大匡 문하태위門下太尉,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에 서훈敍勳되었고 시호는 위양威襄이다.

『청주한씨세적연보世蹟年譜』에 보면, 난蘭은 청주의 방정리方井里 무농평務農坪을 개척, 큰 호족豪族이 되었는데 928년(고려 태조 11) 왕건이 후백제 견훤甄萱을 정벌키 위해 그곳에 당도하자 군량軍糧을 풀어 구원했고 일족을 거느리고 참전, 삼한 통합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하였다. 『한씨세보』에 의하면, 그는 기자箕子의 원손遠孫으로 준왕準王이 위만衛滿에게 쫓겨 마한馬韓을 세우고 스스로 한왕韓王이라 한 것과 위만에게 억류당한 그의 가족이 한씨라 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준왕 이전부터 한씨 성을 썼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난의 상계上系는 기자에까지 이르고 마한 말기 원왕元王의 둘째 아들로 신라 탈해왕조에 벼슬길에 올라 상당 한씨上黨韓氏로서 청주를 본관으로 삼았다는 한우량韓友諒으로부터 비롯되어 흔히 청주 한씨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로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1세 난 이래로 4대의 묘역墓塋이 충북 청원淸原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이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았다고 믿어진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장단長湍·양주楊州·파주坡州 등 경기 지역으로 옮겨가 살았던 것 같다. 그러나 청주 한씨가 장단에 뿌리를 내리게 된 시기 혹은 배경은 확실치 않다. 이를테면 목종조穆宗朝의 인물인 한언공韓彦恭(?~1004)의 경우를 보면, 그는 이미 장단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착세력이었다.

한언공은 단주湍州 사람이니 부친 한총례韓聰禮는 광록소경光祿少卿이었다. 한언공은 성품이 명민하고 학문을 즐겼다. (중략) 목종이 즉위하자 내사시랑, 평장사로 임명하고 4년에 문하시중으로 임명하였다. 왕이 주, 군들을 순행하다가 장단현에 이르렀을 때 한언공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그대의 고향인데 그대의 공로를 생각하여 단주로 승격시키겠다”고 하였다. 당시는 전폐錢幣만을 유통시켰으며 추포黼布의 유통을 금지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자못 불편하였었다. 그래서 한언공이 상소하여 그 폐단을 논술하였더니 왕은 그 의견을 채택하였다. 후에 누차 승진되어 특히 개국후로 봉하고 식읍 1천 토와 감수국사 벼슬을 더 주고 그의 부친 총례에게 내사령 벼슬을 추증하였다.

한언공은 당시 문하시중이 되어 목종을 모시고 주군을 순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장단현에 이르렀다. 이때 왕은 장단현이 바로 한언공의 고향이고 또한 그 공로를 생각해서 단주로 승격시키겠다고 했던 것이다. 장단현이 단주로 승격한 것은 바로 한언공의 공로라 하겠다. 이때부터 장단현은 속현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왕이 파견하는 수령의 직접적 관할을 받게 된 것이다. 비록 나중에 장단현으로 원상복구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장단현이 파평현이라든가 적성현과 같은 다른 속현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은 추포의 사용에 관한 부분이다. 당시의 농업생산은 논농사보다는 밭작물이 주가 되고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삼[麻]이었다. 삼은 삼베[布]라 하여 당시 섬유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이 삼베는 단순한 옷감 소재일 뿐만 아니라 현물화폐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 무렵에는 대외결제의 수단으로서 주로 은이 쓰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서도 주로 금속화폐가 두루 쓰이고 있었다. 따라서 금속화폐를 주조하여 널리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언공은 특이하게도 물품화폐로서의 포의 사용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리고 목종도 이를 추종한 결과 추포의 사용이 회복되었던 것이다.

농업 생산을 위주로 삼고 있는 당시로서는 현물화폐로서의 추포의 기능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한언공의 주장은 삼베가 자신의 고향인 장단현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주요 생산품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경제적 인식은 가까운 당대인으로서의 현실적 판단이었을 것이지만, 멀리는 선조대 '무농평務農坪'의 개간에서 비롯되어 농사를 중시하는 집안의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청주 한씨는 한언공을 계기로 장단 한씨의 계파를 이루게 된다.

한편 장단의 한씨와 관련하여 흥미 있는 점은 ‘서곡리瑞谷里 고분벽화’에 관한 부분이다. 이곳은 원래 장단군으로서 개성과 인접하여 여말선초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으로 민통선 내에 있어 집중적인 조사가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런데 1970년부터 청주 한씨 문중에서는 선조의 묘소를 찾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문열공 한상질韓尙質(?~1400)의 묘라고 했다. 묘 안에는 사방 벽면에 12명의 인물상을 배치했고, 천장에는 별자리를 그린 성신도가 있는 전형적인 고려 말 무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연구소의 발굴과정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확인된 묘지석[誌石]에 의하면 증시창화권공묘명贈諡昌和權公墓銘으로 실제 묘 주인공은 한씨가 아니라 권씨였던 것이다. 판독 결과 묘지명의 주인공은 고려 충렬왕~충목왕 때의 문신 창화공 권준權準(1280~1352)이었다. 권준이 죽은 1352년 사위 홍언박洪彦博의 간청으로 당대 문인인 이인복李仁復이 지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상질’이라고 쓴 비석은 왜 서 있는 것일까. 기막힌 것은 묘지석의 주인공인 권준과 비석의 주인공인 한상질이 내외손內外孫 사이였다는 사실이다. 권준의 둘째 아들인 권적權適의 사위가 한상질의 아버지인 한수韓脩(1333~1384)였던 것이다. 후자는 이것을 ‘공민왕시역사건’ (1374년)을 통해 설명한다.

『고려사』 등을 보면 공민왕은 사랑하는 노국공주가 죽고, 신돈을 통한 개혁정치가 물거품이 되자 엽기적인 성행각을 벌인다. 이때 설치된 것이 자제위子弟衛라는 것이었다. 바로 남색男色이었다. 그런데 1374년 9월 1일, 왕은 내시 최만생崔萬生으로부터 익비益妃의 임신 사실과 그 씨가 홍륜洪倫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지만, 이를 알게 된 홍륜 일파는 술에 만취한 공민왕을 살해한다. 결국 친원파인 이인임李仁任 등이 홍륜과 이 사건에 연루된 자제위 권진權璿과 한안韓安 등을 죽인다. 이때 죽은 권진이라는 인물은 권준의 증손자이다. 그 사건으로 멸문지화의 위기에서 권씨 집안이 뿔뿔이 흩어질 때 권준 할아버지의 제사를 내외손간인 청주 한씨 집안(한수)에 부탁했을 것이며, 청주 한씨 가문이 권준의 제사를 지내 주다가 한수의 아들 한상질의 무덤으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두 문중 사이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싸움 끝에 이 무덤의 주인공은 ‘권준’이라는 ‘역사판결’을 내렸다. 권준의 묘지석이 발견되고, 유물 상

항이나 고려풍 벽화의 형태 등을 보아 틀림없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어느 정도 정황적 추측이 불가피하다. 그래도 권씨 집안에서 조상의 무덤을 한씨 집안에 부탁하고자 했다면, 이는 단순히 사돈간이라는 점 말고도 당시 장단 지역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장단 한씨 세력을 도외시하고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호족세력의 성격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호족세력들을 정리하면, 대체로 태조 왕건과의 인연으로 파주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하거나 혹은 점차 근거지로 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호족이라고 부르기에는 주저되는 점이 있다. 과연 독자적 정치세력으로서 존재했느냐 하는 점이다. 사실 파주 지역은 왕건의 앞마당이나 다름이 없었다. 당시 해군기지가 있었던 정주貞州는 임진강을 통해서 바로 이곳과 연결되었다.

궁예는 또 태조에게 명령하여 정주貞州(경기도 풍덕豊德)에서 전함들을 수리한 후 알찬 종희宗希 김언金言 등을 부장副將으로 하여 군사 2천 5백을 거느리고 광주 진도군珍島郡을 가서 치게 하여 이를 함락시켰다.

정주 포구貞州浦口는 임진강과 한강이 합쳐진 물이 바다로 이어지는 곳에 있었다. 왕건의 해군은 바로 이곳에서 전함을 수리하곤 하였다. 말하자면 내해에 다름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고려사』 기록을 보아도, 파주 지역과 관련하여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한 사례도 나타나지 않는다. 왕건이 작전을 벌인 가장 가까운 곳이 광주廣州였다.

광화 3년 경신(900)에 궁예가 태조에게 명령하여 광주廣州, 충주忠州, 청주靑州 등 3개 주와 당성唐城(경기도 남양), 괴양槐壤(충청도 괴산) 등 군현을 정벌하게 하여 이를 다 평정하였다. 그 공으로 하여 태조에게 아찬阿餐 벼슬을 주었다.

이처럼 파주 지역은 왕건의 그늘 하에 있었다. 과거 선단을 이끌고 해상세력으로서 활동하던 지역도 바로 이 무대였다. 이런 배경으로 본다면 여타의 토착 세력이 힘을 키워 독자적으로 성장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왕건의 세력이 아직 일정 수준으로 성장하기 이전까지는 나름의 힘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 세력들은 처음 토착세력으로서 성장해서 호족세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점차 왕건에게 흡수되어, 휘하의 장수로서 혹은 참모로서 혹은 후방 지원을 해주는 방식 등으로 태조에게 협력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들이 왕건의 절대적 신임을 얻게 된 계기는 아마도 궁예의 축출과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국 혹은 삼한공신의 칭호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